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

The Whisperer in Darkness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6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Whisperer in Darkness" (Weird Tales 1931년 8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Wikisource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말에 이르러 내가 실제로는 어떤 시각적 공포도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두기 바란다. 내가 내린 추론의 원인이 정신적 충격이었다고—밤중에 징발한 자동차를 타고 외딴 에이클리 농가에서 뛰쳐나와 버몬트의 거칠고 둥근 언덕들을 가로질러 질주하게 만든 그 마지막 결정타가 바로 그 충격이었다고—말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에 겪은 가장 명백한 사실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내가 보고 들은 심오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 남긴 인상이 더없이 생생했음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린 그 끔찍한 추론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증명할 길이 없다.

결국 에이클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집 안팎에 총탄 자국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집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치 그가 그저 산책하러 가볍게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손님이 다녀간 흔적조차 없었으며, 서재에 그 끔찍한 원통형 물체들과 기계들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초록빛 언덕과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가득한 그곳을 죽을 만큼 두려워했다는 사실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병적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수천 명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기이한 행동이나 말년에 보인 불안 증세는 그저 괴짜 특유의 성격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충분했다.

나에게 있어 이 모든 일은 1927년 11월 3일에 발생한, 역사에 남을 만큼 전례 없는 버몬트의 홍수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나는 매사추세츠주 아컴에 있는 미스카토닉 대학교의 문학

강사였으며, 뉴잉글랜드 민속학에 열정을 가진 아마추어 연구가이기도 했다. 홍수가 일어난 직후, 언론에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조직적인 구호 활동에 관한 온갖 소식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불어난 강물 위로 정체 모를 물체들이 떠내려왔다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소식에 많은 친구가 흥미로운 토론을 벌였고,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아는 바를 밝혀달라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나의 민속학 연구를 이토록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다는 사실에 나는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들이 그저 오래된 시골의 미신에서 비롯된 터무니없고 모호한 괴담일 뿐이라며, 그 실체를 깎아내리려 애썼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 소문 아래에 분명 모호하고 왜곡된 사실의 층위가 존재할 것이라며 고집을 피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묘한 흥미에 빠뜨렸다.

내가 알게 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신문 스크랩을 통해 접한 것이었다. 다만 그중 한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진 것으로, 버몬트주 하드윅에 사는 내 친구의 어머니가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전해진 내용이었다.

사건의 양상은 모두 본질적으로 같았으나, 크게 세 가지 별개의 사례로 나뉘는 듯했다. 하나는 몬트필리어 인근의 위누스키강과 관련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뉴페인을 지나 윈덤 카운티를 흐르는 웨스트강에서 발생했다. 마지막 하나는 라이든빌 위쪽 칼레도니아 카운티의 패섬식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물론 여기저기 흩어진 기사들에는 다른 사례들도 언급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귀결되었다.

사건마다 공통점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산맥에서 굽이쳐 내려오는 거센 강물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기괴하고 불길한 형체를 하나 혹은 그 이상 목격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접할 때마다, 노인들이 그제야 다시 꺼내 놓는 반쯤 잊힌 원시적인 속삭임의 전설과 연결 지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믿는 것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유기적 형체였다. 비극적인 그 시기에는 당연히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온 수많은 시신이 있었으나, 이 기묘한 형체들을 묘사한 이들은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크기나 전체적인 윤곽이 인간과 비슷해 보일지언정 말이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것들은 버몬트주에서 알려진 그 어떤 동물의 모습과도 달랐다.

그것들은 길이가 5피트 정도 되는 분홍빛 물체였다. 갑각류 같은 몸에는 거대한 등지느러미나 막질의 날개가 쌍을 이루어 달려 있었고, 마디가 있는 여러 쌍의 다리가 돋아 있었다. 보통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수많은 짧은 더듬이로 뒤덮인, 뒤틀린 타원체 모양의 것이 달려 있었다.

서로 다른 출처에서 전해진 보고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실로 주목할 만했다. 다만, 한때 이 산간 지역 전체에 퍼져 있던 오래된 전설들이 목격자들의 상상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경이로움은 다소 반감되었다. 그 전설들은 워낙 기괴하고 생생한 묘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매사 순박하고 단순한 시골 사람들이었을 목격자들은, 소용돌이치는 물살에 떠내려오는 인간이나 가축의 부풀어 오른 사체를 보았을 뿐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희미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던 민간 전설을 덧씌워, 그 가련한 물체들에 환상적인 특징을 부여해 버린 것이라고.

그 오래된 민담은 흐릿하고 모호하며, 오늘날의 세대에게는 거의 잊힌 상태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기이한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인디언 설화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했다. 나는 버몬트에 가본 적은 없었으나, 그 민담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1839년 이전에 그 주의 최고령자들로부터 구전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담은 엘리 대븐포트의 매우 희귀한 논문을 통해 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자료들은 내가 뉴햄프셔 산악 지대의 노인들에게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과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

그 이야기들을 짧게 요약하자면, 인적이 드문 산골 어딘가에 괴물 같은 존재들이 숨어 살고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높은 봉우리의 깊은 숲속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어두운 계곡 사이에 은신하고 있었다. 이 존재들을 직접 목격하는 일은 드물었으나, 그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종종 보고되었다. 평소보다 더 높이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거나, 늑대들조차 피하는 깊고 가파른 협곡 속으로 발을 들였던 이들이 그 흔적을 전해왔다.

개울가 진흙탕과 황량한 땅에는 기이한 발자국 혹은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주변의 풀이 닳아 없어진 채 돌들로 이루어진 기묘한 원형

들도 보였는데, 그것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언덕 비탈에는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동굴들도 있었다. 동굴 입구는 마치 의도라도 한 듯 거대한 바위들로 막혀 있었고, 그 동굴을 향하거나 동굴에서 멀어지는 기이한 발자국들이 여느 곳보다 유난히 많이 찍혀 있었다. 물론 그 발자국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말이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모험심 강한 이들이 아주 드물게 목격했다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인적이 끊긴 외딴 계곡의 황혼 속에서, 혹은 일반적인 등산로를 넘어선 깎아지른 듯한 빽빽한 숲속에서 그 존재들을 보았다.

이런 일들에 관한 떠도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토록 일치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마음이 덜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거의 모든 소문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 괴물들은 여러 쌍의 다리를 가졌으며, 등 한가운데에는 박쥐 같은 커다란 날개가 두 개 달려 있는 거대하고 연한 붉은색을 띤 게의 형상이라는 점이었다. 놈들은 때로는 모든 다리로 걸었고, 때로는 맨 뒷다리 한 쌍으로만 이동하며 나머지 다리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물체들을 옮기기도 했다. 한 번은 놈들이 꽤 많이 목격된 적도 있었다. 숲속의 얕은 물줄기를 따라 놈들이 세 마리씩 짝을 지어, 분명히 훈련된 대열을 갖춘 채 물을 헤치며 나아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또 한 번은 놈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밤중에 황량하고 외딴 언덕 꼭대기에서 몸을 날린 그 괴물은,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보름달을 배경으로 잠시 실루엣을 드러내더니 이내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대체로 이 존재들은 인류를 내버려 두는 듯했다. 물론 때때로 모험심 강한 이들이 사라지는 데 이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말이다. 특히 특정 계곡에 너무 가까이 집을 짓거나, 어떤 산의 너무 높은 곳에 터를 잡은 이들이 주로 그러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뒤에도, 정착하기에 부적절한 곳이라는 인상은 오랫동안 남아 여러 지역을 불길한 장소로 낙인찍었다. 사람들은 이웃한 산의 깎아지른 절벽을 올려다보며 몸서리를 치곤 했다. 비록 그 엄숙하고 푸른 파수꾼 같은 산기슭에서 얼마나 많은 정착민이 목숨을 잃었는지, 얼마나 많은 농가가 잿더미로 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 그러했다.

가장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 괴물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간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거나, 인간 세상에 비밀스러운 전초기지를 세우려 시도했다는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가 창문 주변에서 아침마다 발견되는 기이한 발톱 자국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고, 명백히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진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이 간혹 실종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게다가 깊은 숲속의 도로와 마차 길을 홀로 걷는 여행자에게 인간의 말을 흉내 내며 윙윙거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제안을 건네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졌다. 원시림이 집 앞마당까지 바짝 다가온 곳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는 혼비백산하여 겁에 질리기도 했다.

미신이 쇠퇴하고 공포스러운 장소들과의 접촉이 끊기기 직전, 전설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충격적인 기록들이 등장한다. 생애 어느 시점에 혐오스러운 정신적 변화를 겪은 듯한 은둔자들이나 외딴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피하며, 마치 그 기괴한 존재들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필멸자라며 수군거렸다. 1800년경 북동부의 어느 카운티에서는 별난 성격의 비호감스러운 은둔자들을 그 혐오스러운 존재들의 협력자나 대리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그 존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연히 저마다 다른 설명이 뒤따랐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을 '그것들' 혹은 '옛것들'이라 불렀으나,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쓰이는 다른 명칭들도 있었다. 아마도 청교도 정착민들 대다수는 그들을 악마의 하수인이라 단정 지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외심 섞인 신학적 추측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켈트 전설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들, 즉 뉴햄프셔의 스코틀랜드-아일랜드계 혈통과 웬트워스 주지사의 식민지 토지 하사로 버몬트에 정착한 그들의 친족들은 그 존재들을 늪지나 고분 속에 사는 사악한 요정, 혹은 '작은 사람들'과 막연하게 연결 지었다. 그리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짧은 주문들을 외우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인디언들의 이론은 그 무엇보다 기괴했다. 부족마다 전해지는 전설은 달랐으나, 몇 가지 핵심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다. 그 생명체들이 이 지구의 토착종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한결같이 믿고 있었다.

가장 일관되고 생생한 묘사를 담고 있는 페나쿡 신화에 따르면, '날개 달린 자들'은 하늘의 큰곰자리에서 왔다고 한다. 그들은 지구의 산맥에 광산을 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어떤 행성에서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종류의 돌을 채굴했다고 전해진다. 신화는 그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전초 기지만 유지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막대한 양의 돌을 실은 채 북쪽의 자신들의 별로 날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몰래 훔쳐보는 인간들만을 해쳤다. 동물들은 그들에게 사냥당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혐오감 때문에 그들을 피했다. 그들은 지구의 동식물을 먹지 않았으며, 별에서 가져온 자신들만의 음식을 먹었다.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불길한 일이었고, 때로는 그들의 산맥으로 들어간 젊은 사냥꾼들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다. 밤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한 좋지 않았다. 그 속삭임은 마치 인간의 목소리를 흉내 내려 애쓰는 벌의 날갯짓 소리 같았다. 그들은 페나쿡족, 휴런족, 오연맹체 부족 등 온갖 인류의 언어를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만의 언어는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들은 머리로 대화했는데, 머리의 색깔을 여러 방식으로 바꾸어 각기 다른 의미를 전달했다.

물론 백인과 인디언을 가리지 않고 전해 내려오던 모든 전설은 19세기에 접어들며 사그라들었다. 가끔씩 퇴행적인 공포가 불쑥 튀어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버몬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점차 정착되었다. 그들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관습적인 경로를 만들고 거처를 마련

하자, 애초에 어떤 공포와 기피 현상이 그 계획을 만들었는지, 심지어 그런 공포나 기피가 존재했었는지조차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특정 구릉 지대가 매우 건강에 해롭고, 수익성도 없으며, 전반적으로 살기에 불운한 곳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지낼수록 대개 형편이 나아진다는 사실도 말이다. 시간이 흐르며 관습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해진 구역 안에 깊게 자리 잡자, 굳이 그 범위를 벗어나야 할 이유조차 사라졌다. 결국 유령이 나온다는 언덕들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우연에 가깝게 버려진 채 남겨졌다.

드물게 발생하는 지역적인 공포 사태를 제외하면, 호기심 많은 할머니들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아흔 살 노인들이나 그 언덕에 사는 존재들에 대해 속삭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이제는 그 존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인간의 집과 마을이 들어선 것에 그 존재들이 익숙해졌고, 인간 또한 자신들이 선택한 영토를 그들에게 철저히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동안 읽어온 책들과 뉴햄프셔에서 접한 몇몇 민담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서 홍수처럼 밀려드는 소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소문들을 만들어낸 상상력의 배경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 점을 설명하려 무척 애를 썼지만, 논쟁을 즐기는 몇몇 이들이 그 보고들에 실낱같은 진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계속 주장할 때면 나는 그저 실소할 뿐이었다.

그들은 초기 전설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전해 내려온다는 점을 지적하려 들었다. 또한 버몬트의 산악 지대는 사실상 미지의 영역이나 다름없으니, 그곳에 무엇이 살고 무엇이 살지 않느냐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들을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그 모든 신화가 인류 공통의 익숙한 유형을 따르고 있으며, 인류 초기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특정한 환각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확언했으나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다.

버몬트의 신화가 고대 세계를 가득 채웠던 보편적인 전설들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아도, 그런 반대론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전설들은 자연을 의인화한 것들로, 고대 세계를 파운이나 드라이어드, 사티로스 같은 존재들로 채웠으며, 현대 그리스의 칼리카나라이를 연상시키고, 거칠고 황량한 웨일스와 아일랜드에 기괴하고 작으며 공포스러운 동굴 거주자나 땅굴 파는 종족이 숨어 있다는 어두운 암시를 던져주곤 했다.

네팔 산악 부족들이 히말라야의 얼음과 바위 봉우리 사이에 끔찍하게 숨어 지낸다는 공포의 대상, 즉 '미고'나 '설인'을 믿는다는 사실을 지적해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믿음은 앞서 말한 전설들과 훨씬 더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내가 이런 증거들을 제시할 때마다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이런 유사성이 고대 설화들이 실제로 역사적 근거를 가졌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류가 출현하고 지배

권을 잡은 뒤 숨어버린 기이하고 오래된 지구 종족이 실존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또한 그 종족이 개체 수가 줄어든 채 비교적 최근까지, 혹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몰아세웠다.

심지어 광신적인 극단주의자 두세 명은 그 숨은 존재들에게 외계 기원을 부여한 고대 인디언 설화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다른 세계나 우주 공간에서 온 여행자들이 지구를 자주 방문해 왔다는 주장이 담긴 찰스 포트의 기상천외한 저서들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나의 적들 대부분은 그저 낭만주의자에 불과했다. 그들은 아서 매켄의 훌륭한 공포 소설을 통해 대중화된, 어딘가에 숨어 사는 '작은 사람들'에 관한 환상적인 설화들을 현실 세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쓸 뿐이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흥미진진한 논쟁은 결국 <아캄 애드버타이저>지에 실린 투고문 형식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중 일부는 괴담이 흘러나온 버몬트 지역 신문들에도 실렸다. <러틀랜드 헤럴드>지는 양측의 서신 중 일부를 발췌하여 반 페이지 분량으로 게재했고, <브래틀버로 리포머>지는 내가 쓴 긴 역사적·신화적 요약문을 전문 그대로 다시 실었다. 또한 이 신문의 '펜드리프터'라는 필명의 사려 깊은 칼럼에서도 내 회의적인 결론을 지지하고 찬사를 보내는 논평이 덧붙여졌다. 1928년 봄 무렵, 나는 버몬트 땅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헨리 에이클리가 도전적인 서신을 보내왔다. 그 편지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나

를 울창한 초록빛 절벽과 속삭이는 숲속 시냇물이 가득한 그 매혹적인 영역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끌었다.

헨리 웬트워스 에이클리에 대해 내가 아는 사실 대부분은, 그 외딴 농가에서 겪은 일을 뒤로하고 그의 이웃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외아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수집한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명망을 떨쳐온 법조인, 행정가, 그리고 지주 계급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하지만 에이클리 가문은 그를 기점으로 실무적인 일보다는 순수 학문에 정신적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덕분에 그는 버몬트 대학교에서 수학, 천문학, 생물학, 인류학, 그리고 민속학을 전공한 저명한 학생이었다. 나는 그에 대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 역시 편지에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알아보았듯, 그는 세속적인 수완은 부족할지언정 인품과 교양, 그리고 지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무리 믿기 힘든 것이었을지라도, 나는 내 견해에 도전하는 다른 이들보다 에이클리를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는 자신이 그토록 기괴하게 추측해 마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제 현상에 아주 근접해 있었다. 또한 그는 진정한 과학자답게 자신의 결론을 확정 짓지 않고 조심스럽게 열어두는 태도를 놀라울 정도로 잘 유지했다. 그는 개인적인 사심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신이 확신하는 확실한 증거만을 따랐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틀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틀린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의 아이디어나 저 외

로운 초록빛 언덕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미친 짓이라 치부하던 그의 친구들과는 달리, 나는 결코 그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나는 그가 꽤 심도 있는 인물임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가 보고하는 내용이 설령 그가 추측하는 환상적인 원인들과는 관련이 없을지라도, 조사할 가치가 충분한 기이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믿었다.

훗날 나는 그로부터 몇 가지 물적 증거를 전달받았다. 그 증거들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그리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기괴한 차원으로 몰아넣었다.

에이클리가 자신을 소개하며 보낸 그 긴 편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그대로 옮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 편지는 내 지적 역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이정표였다. 이제 그 편지는 내 손에 없지만, 그 불길한 메시지의 문구들은 거의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확언한다. 그 편지를 쓴 남자는 결코 미치지 않았다고 말이다.

여기 그 전문을 싣는다. 이 글은 학문에 몰두하며 정적인 삶을 살아온 탓에 세상과 그리 어울리지 못한 이가 쓴, 좁고 투박하며 고풍스러운 필체로 내게 전달되었던 바로 그 글이다.

버몬트주 윈덤 카운티, 타운젠드, R.F.D. #2. 1928년 5월 5일.

매사추세츠주 아컴, 솔턴스톨가 118번지, 앨버트 N. 윌마스 귀하

친애하는 선생님께,

지난해 가을, 범람한 시냇물에서 기이한 사체들이 떠내려왔다는 최근의 소식과 그 사체들이 기묘할 정도로 일치하는 민간 전승에 관해, 당신이 보낸 편지를 『브래틀버로 리포머』(1928년 4월 23일 자)의 재수록본을 통해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외지인인 당신이 왜 그런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왜 '펜드리프터'라는 이가 당신의 의견에 동조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버몬트 내외를 막론하고 교육받은 이들이 대개 취하는 태도이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젊은 시절(지금은 쉰일곱입니다)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문 연구와 데이븐포트의 저서를 통한 심화 연구를 거치며, 평소에는 잘 발을 들이지 않는 이 근처 산악 지대들을 직접 탐사해 본 뒤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무지하기 짝이 없는 노인네 농부들에게서 듣던 기묘한 옛이야기들이 나를 이런 연구로 이끌었지만, 이제 와 생각하면 차라리 그 일에 아예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든다. 겸손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인류학이나 민속학 같은 주제는 내게 결코 생소한 분야가 아니다. 대학 시절 관련 과목을 꽤 공부하기도 했고, 타일러, 러벅, 프레이저, 카트레파주, 머레이, 오스본, 키스, 불, G. 엘리엇 스미스 같은 권위 있는 학자들의 저서도 대부분 익히 알고 있다. 숨겨진 종족에 관한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사실 또한 내게는 그리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당신이 러틀랜드 헤럴드지에 보낸 편지들과 그에 동조하는 글들을 재인쇄본으로 접했기에, 현재 당신이 벌이고 있는 논쟁이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는지도 대략 짐작하고 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록 모든 이성이 당신의 편을 들어주는 듯 보일지라도, 당신의 적들이 당신보다 더 옳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할 만큼 당신의 적들이 더 옳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론에만 의존할 뿐,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조차 그들만큼 이 문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면, 나 역시 그들의 믿음이 정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나는 온전히 당신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제가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꽤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마도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높은 언덕 위 숲속에, 정말로 괴물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된 바와 같이 강물 위를 떠다니는 것들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와 비슷한 존재들을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발자국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제 집 근처에서도 그 흔적들을 발견했는데, 지금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겁이 날 정도로 집과 가까운 곳입니다. 저는 타운젠드 마을 남쪽, 다크 마운틴 기슭에 있는 옛 에이클리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숲속 특정 지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도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종이에 적어 설명하기조차 시작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 나는 축음기에 녹음용 장치와 왁스 원반을 챙겨 들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다. 조만간 내가 녹음한 그 음반을 당신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 이곳의 노인들에게 그 음반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목소리는 노

인들을 마비될 정도로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그 목소리가 어떤 특정한 소리와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이었다. 데이븐포트가 언급했던, 숲속에서 들려오던 그 윙윙거리는 소리 말이다. 노인들의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들려주며 흉내 내던 바로 그 소리였다.

사람들이 흔히 '환청을 들었다'고 말하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선 이 녹음본을 들어보라. 그리고 이곳 산간 지역의 노인들에게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라. 만약 당신이 이 현상을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하지만 분명 이 현상 뒤에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다. 무(無)에서 유(有)가 창조될 수는 없는 법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글을 쓰는 목적은 논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처럼 식견이 높은 분이라면 매우 흥미롭게 여기실 만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나는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구 또한 이제는 전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내가 탐사했던 장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일 따위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정말이지 끔찍할 정도로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얻게 된 것은 한 비참한 사내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생각하기에)

제정신이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 스파이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나는 지금도 그런 존재들이 더 남아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다. 성간 우주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에테르의 저항을 이겨내는 투박하고 강력한 날개를 펼쳐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온다. 하지만 그 날개는 조종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구에서 이동할 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만약 당신이 나를 당장 미친놈 취급하며 내쫓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겠다.

그것들은 언덕 아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는 광산에서 금속을 캐내기 위해 이곳에 온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해를 끼치지는 않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인간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군대라면 그들의 채굴 식민지를 쓸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바깥에서 더 많은 존재가 몰려올 것이다.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 말이다. 그들은 지구를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에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내가 발견한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 동쪽, 라운드 힐의 숲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상형문자가 반쯤 마모된 거대한 검은 돌을 발견했다. 그 돌을 집으로 가져온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만약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눈치챘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나를 죽이거나 혹은 그들이 온 곳으로 끌고 가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가끔씩 학식 있는 자들을 납치해 가곤 한다.

이 사실은 제가 당신에게 글을 쓰는 또 다른 목적,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더 공론화하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이 언덕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홍보업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버몬트로 몰려들어, 여름 휴양객들을 떼 지어 몰고 오며 이 거친 황무지를 유린하고 언덕마다 저렴한 방갈로를 가득 채우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계속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그 축음기 음반과 검은 돌을 특급 우편으로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돌은 너무 닳아 있어서 사진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괴물들이 이곳의 물건들을 건드리는 수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을 근처 농장에는 브라운이라는 음침하고 은밀한 놈이 있는데, 제 생각에 그놈은 그들의 첩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너무 많은 것

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우리 세계로부터 조금씩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는 놀라운 수단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이 편지를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 지역을 떠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아들 곁으로 가서 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태어나 자란 곳이자, 조상 대대로 6대째 살아온 터전을 떠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 괴물들이 이 집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이상, 이제 와서 누구에게 집을 팔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검은 돌을 되찾고 축음기 음반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듯하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이곳에 나타난 놈들은 아주 적은 데다 움직임도 서툴러서, 나의 커다란 경찰견들이 늘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이미 말했듯이, 지구에서의 짧은 비행에는 그들의 날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는 지금 그 돌에 담긴 내용을 해독하기 직전이다.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말이다. 민속학에 정통한 당신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큼 부족한 연결 고리들을 채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포스러운 신화들, 즉 네크로노미콘에 암시된 요그소토스와 크툴루 신화에 대해서는 당신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나도 한때 그 책의 사본을 접한 적이 있는데, 듣기로는 당신의 대학 도서관에 자물쇠로 엄격히 잠긴 채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윌마스 씨, 각자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을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돌과 기록물을 소유하는 것이 그리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두어야겠군요. 하지만 지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곳의 우체국이 더 믿을 만하니, 제가 직접 뉴페인이나 브래틀버로까지 차를 몰고 가서 발송하도록 하지요.

덧붙이자면, 저는 현재 거의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꾼을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집 근처로 다가오려는 정체 모를 존재들 때문에 일꾼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곤 합니다. 게다가 개들이 밤낮없이 계속 짖어대는 통에 더욱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일에 이토록 깊이 발을 들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내는 미쳐버리고 말았을 테니까요.

부디 제가 당신을 지나치게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편지를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 치부하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대신, 저와 연락을 취하기로 마음먹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올림

헨리 W. 에이클리

H. W. A.

이 기묘한 문서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평소의 상식대로라면, 이전에 접했던 훨씬 완만한 이론들에 웃음을 터뜨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비웃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편지에 담긴 어조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 나는 역설적이게도 이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서신을 보낸 이가 말한 '별에서 온 숨겨진 종족'을 단 한 순간이라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엄중한 의구심을 품고 검토를 거듭할수록, 나는 그가 제정신이며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이 들었다. 또한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실체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느꼈다. 그가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한 방식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실체를 말이다.

그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나는 반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충분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고 겁에 질려 있는 듯 보였으나, 그 모든 반응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치부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가 늘어놓는 이야기가 오래된 신화들, 심지어 가장 황당무계한 인디언 전설들과도 너무나도 당혹스러울 만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언덕 너머에서 정말로 불길한 목소리를 엿들었다는 사실과, 그가 말했던 그 검은 돌을 실제로 발견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비록 그가 내린 결론들이 미친 사람의 궤변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아마도 그 결론은, 스스로를 바깥 것들의 스파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자살한 그 남자가 심어놓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 남자가 완전히 미쳐 있었다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기묘할 정도로 논리적인 면모가 있었고, 민속학을 공부하며 이미 그런 기괴한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던 순진한 에이클리를 설득해 그의 이야기를 믿게 만들었을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에이클리가 고용한 일꾼들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소박한 이웃들 또한 에이클리만큼이나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밤마다 그의 집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축음기 음반 문제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방식으로 그 음반을 구했을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소리에는 분명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터였다. 그것이 인간의 말처럼 들리도록 교묘하게 흉내 낸 짐승의 울음소리든, 혹은 밤마다 어둠 속을 떠도는 어떤 은둔자가 하등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타락하여 내뱉는 말소리든 말이다. 이 생각을 기점으로 내 사고는 검은 상형문자가 새겨진 돌로, 그리고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추측으로 되돌아갔다. 또한 에이클리가 곧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노인들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끔찍하다고 여겼던 그 사진들은 또 어떠한가.

빽빽하게 눌러쓴 글씨를 다시 읽어 내려가며, 나는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쉽게 믿어버리는 나의 반대론자들이, 내가 인정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령 민담에 나오는 별에서 온 괴물 같은 종족은 아닐지라도, 저 기피되는 언덕 어딘가에는 기이하고 유전적으로 기형적인 추방자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만약 그런 존재들이 정말 있다면, 침수된 개울에서 발견된 정체 모를 사체들 또한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오래된 전설과 최근의 보고들이 어느 정도 실체를 품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지나친 자만일까? 하지만 이런 의구심이 마음속에 피어오를수록, 헨리 에이클리의 광기 어린 편지 같은 기괴한 사건이 나를 이런 생각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수치심이 밀려왔다.

결국 나는 에이클리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친근한 관심을 표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약속대로 거의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그 편지에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할 풍경과 사물들을 찍은 코닥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훑어보던 나는, 기묘한 공포와 금기된 영역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진 대부분이 흐릿하긴 했으나, 그것들이 지닌 암시적인 힘은 지독할 정도로 강렬했다. 무엇보다 이 사진들이 실제 사진이라는 사실이 그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다. 사진은 묘사된 대상을 향한 실질적인 광학적 연결 고리였으며, 편견이나 오류, 혹은 거짓이 개입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전달 과정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사진들을 들여다볼수록 에이클리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나의 진지한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 사진들은 버몬트의 산맥 어딘가에, 우리의 상식과 믿음의 범위를 아득히 벗어난 무언가가 존재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발자국이었다. 인적 없는 고지대의 진흙탕 위로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한눈에 봐도 조잡하게 위조한 흔적은 없었다. 사진 속에 선명하게 찍힌 자갈과 풀잎들이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척도가 되어주었고, 교묘한 이중 노출의 가능성조차 차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발자국'이라 불렀지만, '발톱 자국'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지금도 그것을 설명하려니 막막하기만 하다. 그저 흉측한 게의 형상을 닮았으며,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지조차 모호해 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자국이 아주 깊거나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크기는 보통 성인 남성의 발과 비슷했다. 중앙의 발바닥 부분에서는 톱날 같은 집게 모양의 발톱 두 쌍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뻗어 나와 있었다. 만약 이 기관이 오로지 이동을 위한 용도라면, 그 기능이 무엇인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짙은 그림자 속에서 장시간 노출로 촬영한 것이 분명한 그 사진에는 숲속 동굴의 입구가 찍혀 있었는데, 둥글고 매끄러운 바위 하나가 입구를 꽉 틀어막고 있었다. 동굴 앞 맨땅에는 기이한 발자국들이 빽빽한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이 겨우 보였다. 돋보기를 들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발자국들이 앞선 사진에서 본 것과 닮았다는 확신이 들어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세 번째 사진은 거친 언덕 꼭대기에 드루이드의 유적처럼 둥글게 늘어선 선돌들을 보여주었다. 그 기묘한 돌기둥 원 주변은 풀이 아주 심하게 짓밟히고 닳아 있었지만, 돋보기를 써도 발자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배경을 이루며 안개 낀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주인 없는 산들의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그곳이 얼마나 아득히 외딴곳인지 절로 실감할 수 있었다.

발자국이 가장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면, 라운드 힐 숲에서 발견된 거대한 검은 돌은 기묘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에이클리는 분명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서 그 돌을 촬영한 듯했다. 배경에 책들이 줄지어 있고 밀턴의 흉상이 보였기 때문이다. 짐작건대 그 물체는 카메라를 향해 수직으로 놓여 있었으며, 가로세로 1x2피트 정도 되는 불규칙하게 굽은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면의 상태나 전체적인 형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들면,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그 돌은 분명 인위적으로 깎아 만든 것이 분명한데, 대체 어떤 기괴한 기하학적 원리가 그 절단 과정을 지배했는지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이토록 이질적인 존재를 본 적은 전에도 없었다.

표면에 새겨진 상형문자 중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으나, 간신히 식별해낸 한두 개의 문자는 나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물론 그것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 나 말고도 미친 아랍인 압둘 알하자드가 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네크로노미콘을 읽은 이들이 세상에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다. 그 문자들이 학문적 연구를 통해 내가 익혔던, 바로 그 공포스러운 상징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내적 세계들이 만들어지기 전, 일종의 광기 어린 반(半)존재 상태로 머물렀던 존재들에 관한,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신성모독적인 속삭임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은 다섯 장의 사진 중 세 장은 늪과 언덕을 찍은 것이었다. 그 풍경에는 무언가 숨겨진 존재가 불결하게 머물다 간 흔적이 남아 있는 듯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에이클리의 집 근처 땅에 찍힌 기묘한 자국이었다. 에이클리의 말에 따르면, 평소보다 개들이 격렬하게 짖어대던 밤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찍은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매우 흐릿해서 무엇이라 단정 짓기는 어려웠으나, 버려진 고원에서 찍었던 그 다른 자국이나 발톱 자국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에이클리의 저택 자체를 찍은 것이었다. 백 년이 조금 넘은 이 2층짜리 흰색 집은 다락방까지 딸린 깔끔한 구조였으며,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돌로 테두리를 두른 오솔길이 고풍스럽게 조각된 조지아 양식의 현관문으로 이어져 있었다. 잔디밭에는 커다란 경찰견 몇 마리가 있었고, 그 곁에는 짧게 다듬은 회색 수염을 가진 인상 좋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에이클리 본인이라 생각했다. 그의 오른손에 든, 관으로 연결된 고무 전구(셔터 릴리스)를 보면, 그가 직접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림들을 다 본 뒤, 나는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두툼한 편지 본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뒤이어 세 시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심연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이전까지 에이클리가 대략적인 윤곽만을 서술했다면, 이제 그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밤의 숲속에서 엿들은 말들을 길게 기록해 두었으며, 황혼 무렵 언덕 위 덤불 속에서 목격한 기괴한 분홍빛 형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또한 스스로를 스파이라고 칭하며 자살한 그 미친 남자가 남

긴, 끝도 없이 이어진 과거의 담론들에 심오하고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접목하여 도출해 낸 끔찍한 우주적 서사까지 담아냈다.

나는 그 글 속에서 이전에 가장 끔찍한 맥락으로 접했던 이름과 용어들을 마주했다. 유고스, 위대한 크툴루, 차토구아, 요그소토스, 르리에, 니알라토텝, 아자토스, 하스터, 이안, 렝, 할리 호수, 베스무라, 황색 표식, 르무르-카툴로스, 브란, 그리고 마그눔 이노미나담까지. 그 이름들은 나를 이름 없는 영겁의 세월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차원 너머로 끌고 갔다. 그곳은 《네크로노미콘》의 미친 저자가 아주 막연하게나마 추측했을 뿐인, 태고의 바깥 존재들이 거하는 세계였다. 나는 태초의 생명이 꿈틀대는 구덩이와 그곳에서 흘러나온 줄기들에 대해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줄기 중 하나가 갈라져 나와 우리 지구의 운명과 뒤엉키게 된 아주 작은 물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머릿속이 어지럽게 휘몰아쳤다. 전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 애썼지만, 이제는 도저히 믿기 힘든 비정상적인 경이로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저주스러울 만큼 방대하고 압도적이었다. 에이클리의 태도는 지극히 냉철하고 과학적이었다. 광기에 사로잡히거나, 광신적으로 변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추측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 차분했던 그의 태도는 내 사고와 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 공포스러운 편지를 내려놓을 때쯤, 나는 그가 왜 그런 두려움을 품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황량하고 유령이 출몰하는 언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당시의 충격이 무뎌지고, 내 경험조차 의심스러워지는 끔찍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클리의 편지에는 차마 인용조차 할 수 없고 종이 위에 글로 옮길 엄두조차 나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 편지와 기록, 그리고 사진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려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곧 밝혀지겠지만, 해왕성 너머에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 편지를 읽은 후, 버몬트의 공포에 대해 대중과 논쟁하던 일은 완전히 끝이 났다. 반대파들의 공격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언젠가 답하겠다는 약속만 남긴 채 미뤄졌다. 결국 그 논쟁도 서서히 힘을 잃으며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5월 말부터 6월 사이, 나는 에이클리와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았다. 가끔 편지가 분실되는 바람에, 이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다시 추적하며 고된 필사 작업을 반복해야 할 때도 있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은 모호한 신화학적 지식들을 서로 대조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버몬트에서 일어난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인류의 원시적인 전설들과 명확하게 연결해 보고자 했다.

우선, 우리는 그 기괴한 현상들과 히말라야의 지옥 같은 미고가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의, 육신을 입고 나타난 악몽이라는 결론을 내렸

다. 또한 흥미로운 동물학적 추측들도 뒤따랐다. 만약 에이클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대학의 덱스터 교수에게 이 내용을 문의했을 것이다. 내가 지금 그 명령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이 시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공공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경고란 버몬트의 저 멀리 떨어진 언덕들에 관한 것이며, 용기 있는 탐험가들이 점점 더 집요하게 오르려 하는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달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목표는 그 악명 높은 검은 돌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만약 해독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어지러운 비밀을 손에 넣게 될지도 모른다.

6월 말쯤, 축음기 레코드가 도착했다. 에이클리는 브래틀버로 북쪽 지선 열차의 운송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며, 레코드를 브래틀버로까지 보낸 뒤 그곳에서 따로 받아오게 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고 있었다. 우리가 주고받은 편지 몇 통이 사라지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다. 에이클리는 정체 모를 존재들의 도구이자 대리인 노릇을 하는 몇몇 인간의 음험한 행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곤 했다.

그가 가장 의심하는 인물은 월터 브라운이라는 무뚝뚝한 농부였다. 브라운은 깊은 숲 근처, 허물어져 가는 산비탈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브래틀버로와 벨로스 폴스, 뉴페인, 그리고 사우스 런던데리 같은 곳의 길모퉁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빈둥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에이클리는 브라운의 목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에 아주 끔찍한 대화를 엿들었을 때 들었던 목소리 중 하나가 바로 저 목소리라고 확신했다. 게다가 그는 언젠가 브라운의 집 근처에서 매우 불길한 의미를 담고 있을 법한 발자국, 혹은 발톱 자국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자국은 기묘하게도 브라운 자신의 발자국 바로 옆에 찍혀 있었는데, 마치 브라운의 발자국이 그 자국을 향해 걸어간 듯한 모습이었다.

기록물은 브래틀버로에서 발송되었다. 에이클리는 자신의 포드 자동차를 몰고 버몬트의 외딴 시골길을 따라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동봉된 쪽지에 그 길들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이제는 생필품을 구하러 타운젠드에 갈 때조차 반드시 대낮에만 움직이겠노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침묵에 잠긴 의문스러운 언덕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한,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은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든 기억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이 깃든 이곳을 떠나는 것이 괴롭긴 하겠지만, 그는 조만간 아들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떠날 예정이라고 적었다.

대학 행정동에서 빌려온 상업용 재생기에 이 녹음물을 틀어보기 전, 나는 에이클리가 보낸 여러 통의 편지에 담긴 설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다. 에이클리의 말에 따르면, 이 녹음은 1915년 5월 1일 새벽 1시경에 이루어졌다. 장소는 리의 늪지대에서 다크 마운틴의 숲이 우거진 서쪽 경사면이 솟아오른 곳, 그 근처에 입구가 막힌 동굴 앞이었다.

그곳은 언제나 기이한 목소리들로 인해 유독 시달려온 곳이었다. 에이클리가 결과물을 기대하며 축음기와 녹음기, 그리고 빈 기록 매체를 챙겨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유럽 지하 전설에 등장하는 끔찍한 사바트의 밤인 '5월의 전야'가 다른 어느 날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들려줄 것이라 짐작했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가 그 특정한 장소에서 목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숲에서 들려온 다른 소리들과 달리, 녹음된 내용의 실체는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한 형식을 띠고 있었다. 그 안에는 에이클리가 끝내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 분명히 인간의 것이라 느껴지는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브라운의 목소리는 아니었으나, 그보다 훨씬 교양 있는 남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두 번째 목소리였다. 그것은 저주스러운 윙윙거림이었는데, 문법에 맞는 유창한 영어와 학구적인 억양으로 인간의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 정체만큼은 결코 인간의 것과 닮지 않은 기괴한 소리였다.

축음기와 녹음기는 결과가 일정하게 좋지 않았다. 게다가 엿들은 의식 자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들렸기에, 녹음 상태는 당연히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실제로 확보한 음성 데이터는 아주 단편적인 수준이었다. 에이클리는 자신이 들은 내용이 맞다고 믿는 단어들을 필사하여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기계를 작동시킬 준비를 하며 그 필사본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내용은 대놓고 끔찍하기보다는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연상적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기억나는 대로 그 내용을 이곳에 온전히 옮기고자 한다. 필사본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녹음된 음반 자체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기에, 나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결코 쉽게 잊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으니까.

(분간할 수 없는 소리들)

(교양 있는 남성의 목소리)

…은 숲의 주인이시니, 심지어 …에게까지 …이며, 렝의 인간들이 바치는 선물은 …이라. 밤의 샘에서 우주의 심연으로, 다시 우주의 심연에서 밤의 샘으로, 위대한 크툴루와 사토구아, 그리고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될 그분을 향한 찬양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그분들을 향한 찬양이 영원하기를, 숲의 검은 염소에게 풍요가 깃들기를. 이아! 슈브니구라스! 천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염소여!

(인간의 말을 흉내 내는 듯한 윙윙거리는 소리)

이아! 슈브니구라스! 천 마리 새끼를 거느린 숲의 검은 염소여!

(인간의 목소리)

그리고 숲의 주인이 오셨으니, 그는 일곱이자 아홉이며, 오닉스 계단을 내려와… 만(灣)에 계신 그분, 아자토스에게 경배를 올리노라. 당

신께서 우리에게 경이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신 그분께… 공간 너머 밤의 날개 위에서, 저 너머… 유고스가 가장 어린 자식으로서, 심연의 가장자리 검은 에테르 속을 홀로 구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윙윙거리는 목소리)

…인간들 사이로 나아가 그 길을 찾아내라. 그리하여 저 만(灣)에 계신 그분께서 알게 하라. 위대한 전령인 니알라토텝에게 만물의 이야기를 전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분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밀랍 가면과 몸을 숨길 의복을 걸친 채, 일곱 개의 태양이 뜨는 세계로부터 내려와 조롱할 것이다…

(인간의 목소리)

(니알)라토텝, 위대한 전령이자 공허를 가로질러 유고스에 기이한 기쁨을 가져오는 자, 수많은 총애받는 자들의 아버지, 그리고 . . . 사이를 배회하는 추적자여.

(녹음 종료로 인해 음성 끊김)

축음기를 작동시켰을 때 내가 듣게 될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 레버를 누르자 사파이어 바늘이 내는 듯한 초반의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진심 어린 공포와 망설임을 느끼며 그 동작을 수행했다. 다행히도 처음 들려온 희미하고 단편적인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교양 있게 들렸으며, 억양은 어딘가 보스턴 사람 같았다. 적어도 버몬트 산골 출신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애를 태울 만큼 가냘프게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그 말들이 에이클리가 정성껏 준비

한 기록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부드러운 보스턴식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읊조리고 있었다.

"이아! 슈브니구라스! 천 마리 새끼를 거느린 염소여! . . ."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이클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 소리가 나를 덮쳤을 때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회상하기조차 두렵다. 이후 이 기록을 접한 이들은 그저 저급한 사기극이나 광기 어린 망상일 뿐이라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 저주받은 실체를 직접 마주했거나, 에이클리가 보낸 편지들, 특히 그 끔찍하고 방대한 내용을 담은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았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에이클리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기록을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지 않은 것이 참으로 뼈아픈 후회로 남는다. 그의 편지들이 모두 유실된 것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 소리를 직접 듣고 그 배경과 정황을 모두 알고 있는 나에게, 그 목소리는 괴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의식을 치르듯 인간의 목소리를 즉각 뒤따라 응답했다. 내 상상 속에서 그 소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외계의 지옥으로부터,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병적인 메아리였다. 그 신성모독적인 왁스 실린더를 마지막으로 재생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순간에도, 그 소리가 처음 내 귀에 닿았을 때의 그 가냘프고도 악마적인 윙윙거림이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이아! 슈브니구라스! 천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숲속의 검은 염소여!"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고 있지만, 아직은 그 소리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혐오스럽고 거대한 곤충이 윙윙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 소리는 외계 종족의 명확한 언어 형태로 무겁게 변형되어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인간의 성대와는 전혀 닮지 않았음을, 아니 포유류라면 그 어떤 생물의 발성 기관과도 닮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음색과 음역, 그리고 배음에는 기묘한 특이점들이 있었는데, 그 점 때문에 이 현상은 인류나 지구상의 생명체라는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처음 그 소리가 갑작스럽게 들려왔을 때,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 후의 기록은 마치 넋이 나간 듯 멍한 상태로 들어갔다. 이어서 길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이어지자, 앞서 짧게 들렸던 소리에서 느꼈던 그 불경스러운 무한함의 감각이 더욱 날카롭게 몰아쳤다. 마침내 기록은 보스턴 억양을 쓰는 인간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끊겼다. 기계가 자동으로 멈춘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앞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충격적인 기록을 여러 차례 다시 재생하고, 에이클리와 의견을 대조해 가며 그것을 분석하고 논평하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내린 결론을 이곳에 전부 되풀이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읽는 이에게도 불쾌한 경험이 될 터다. 다만 한 가지 암시하자면, 인류의 신비로운 고대 종교 속에 남아 있는 가장 혐오스럽고 원시적인 관습들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점에는 우리 둘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우리는 숨어 있는 바깥 것들과 인류의 특정 집단 사이에 오래되고 정교한 결탁이 존재해 왔음을 분명히 느꼈다. 이러한 결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상태가 과거와 비교해 어떠한지는 도저히 짐작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 불길한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끝도 없는 공포 섞인 추측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인간과 이름 모를 무한한 존재 사이에는, 몇몇 명확한 단계마다 끔찍하고도 아득한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 듯했다.

지구에 나타난 그 신성모독적인 존재들은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어두운 행성, 유고스에서 왔다는 암시가 있었다. 그러나 유고스조차도 무시무시한 성간 종족이 거주하는 번잡한 전초기지에 불과했다. 그 종족의 진정한 근원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연속체나 우리가 아는 가장 거대한 우주 너머, 훨씬 더 먼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사이 우리는 검은 돌과 그것을 아컴으로 옮길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에이클리는 자신이 악몽 같은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현장으로 나를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에이클리는 그 물건을 일반적이거나 예상 가능한 운송 경로에 맡기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가 내놓은 최종 계획은 돌을 육로로 가로질러 벨로스 폴스로 가져간 뒤, 보스턴 앤 메인 철도를 이용해 킨, 윈첸던, 피치버그를 거쳐 보내는 것이었다. 비록 이 경로를 택하려면 브래틀버로로 향하는 큰 길 대신, 숲이 우거진 외딴 산길을 한참 달려야 했지만 말이다.

에이클리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축음기 음반을 보냈을 때 브래틀버로의 급행 화물 사무소 근처에서 어떤 남자를 목격했다고 한다. 그 남자의 행동과 표정은 전혀 안심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직원들에게 말을 걸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고, 음반이 실린 열차에 올라탔다고 했다. 에이클리는 내가 음반을 무사히 받았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 음반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내내 마음을 놓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 무렵, 즉 7월의 둘째 주쯤이었을 것이다. 에이클리로부터 불안함이 역력한 연락을 받고서야 내가 보낸 또 다른 편지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에이클리는 더 이상 타운젠드로 편지를 보내지 말고, 브래틀버로 우체국의 일반 우편물 수령함(General Delivery)을 통해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동차나, 혹은 최근에 완행 열차 노선을 대신해 운행하기 시작한 버스를 타고 브래틀버로를 수시로 오갈 계획이었다.

에이클리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달이 뜨지 않는 밤이면 개들이 유난히 더 심하게 짖어댄다거나, 아침이 밝았을 때 농장 뒷마당 진흙탕과 길가에서 새로운 발톱 자국을 발견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히 늘어놓았다. 한 번은 개들의 발자국과 맞물려, 마치 군대처럼 일렬로 늘어선 짐승의 발자국들이 개들의 발자국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름 끼치도록 불길한 코닥 사진 한 장을 보내오기도 했다. 개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짖고 울부짖던 어느 밤이 지나고 난 뒤의 일이었다.

7월 18일 수요일 아침, 벨로스 폴스에서 전보 한 통이 도착했다. 에이클리가 보낸 전보에 따르면, 그는 검은 돌을 B. & M. 철도 5508호 열차편으로 급행 발송했다고 했다. 열차는 표준시 기준 오후 12시 15분에 벨로스 폴스를 출발하여, 오후 4시 12분에 보스턴 노스 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내 계산으로는 늦어도 다음 날 정오쯤에는 아컴에 도착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받으려고 목요일 오전 내내 집을 지켰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록 물건은 나타나지 않았다. 급히 역의 화물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으나, 내 앞으로 온 화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불안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나는 곧바로 보스턴 노스 역의 화물 대리점으로 장거리 전화를 걸었다. 내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도 딱히 놀랍지는 않았다. 5508호 열차는 전날 35분 정도 늦게 도착했을 뿐, 내 이름이 적힌 상자는 실려 있지 않았다. 대리인은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에이클리에게 야간 우편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마쳤다.

다음 날 오후, 보스턴 사무소에서 놀라울 정도로 신속한 보고가 왔다.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담당 직원이 곧바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5508호 열차의 철도 급행 화물 담당 직원이 내 분실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법한 사건 하나를 기억해 냈다고 했다. 표준시로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열차가 뉴햄프셔주 킨에 머물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그 직원의 말에 따르면, 마르고 모래빛 머리칼을 가진, 시골뜨기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아주 기묘한 목소리로 자신(그 직원)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자신이 받을 예정이라 주장하는 무거운 상자 하나에 대해 몹시 흥분한 상태였으나, 정작 그 상자는 열차 안에도 없었고 회사의 장부에도 올라와 있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을 스탠리 애덤스라고 소개했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굵고 웅웅거리는 울림이 있어서, 직원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비정상적일 정도로 어지럽고 졸음이 쏟아졌다고 했다.

직원은 대화가 정확히 어떻게 끝났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정신이 번쩍 들며 잠에서 깨어났던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보스턴의 담당 직원은 덧붙이기를, 이 화물 담당 직원은 신원도 확실하고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성실함과 신뢰도가 의심의 여지 없이 검증된 젊은이였다고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이름과 주소를 들고 그 직원을 직접 만나러 보스턴으로 향했다. 그는 솔직하고 호감을 주는 청년이었으나, 이미 보고한 내용 외에 더 보탤 말은 없다는 사실을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기이하게도 그는 그 기묘한 문의자가 다시 찾아온다면 알아볼 수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그에게서 더 들을 이야기가 없음을 깨달은 나는 아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밤을 지새우며 에이클리에게 편지를 쓰고, 익스프레스 회사와 경찰국, 그리고 킨의 역장에게도 서신을 보냈다.

그 직원에게 그토록 기묘한 영향을 끼쳤던 그 정체 모를 목소리의 남자는, 이 불길한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킨 역의 직원들이나 전신국 기록을 통해 그 남자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가 언제 어디서 그런 문의를 남겼는지 알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의 모든 조사 결과는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기묘한 목소리를 가진 그 남자가 7월 18일 이른 오후, 킨 역 근처에서 목격된 것은 사실이었다. 근처에서 빈둥거리던 사람 중 한 명은 그 남자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다고 어렴풋이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고, 그 전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는 전신국을 방문하지도, 메시지를 받지도 않았다. 또한 5508호에 검은 돌이 나타났음을 알릴 만한 그 어떤 메시지도 전신국을 통해 전달된 적이 없었다.

당연히 에이클리도 나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역 주변 사람들을 직접 심문하기 위해 킨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나보다 훨씬 숙명론적이었다. 그는 상자를 잃어버린 사건을, 피할 수 없는 불길한 흐름이 실현된 징조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상자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조금도 품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언덕에 사는 괴물들과 그 수하들이 분명히 텔레파시와 최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곤 했으며, 한 편지에서는 그 돌이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듯한 암시를 남기기도 했다.

나로서는 몹시 화가 날 따름이었다. 그 오래되고 흐릿한 상형문자들을 통해 심오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낼 기회가 적어도 한 번은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에이클리가 보낸 다음 편지들이 이 끔찍한 언덕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며 나의 주의를 단숨에 사로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일로 인해 오랫동안 쓰라린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그 정체 모를 존재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집요하게 자신을 압박해 오기 시작했다고, 에이클리는 가련할 정도로 떨리는 필체로 적어 내려갔다. 달빛이 흐릿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밤이면 개들이 내뱉는 야행성 짖음 소리는 이제 끔찍한 공포로 다가왔다. 낮에 홀로 지나야 하는 외딴 길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

8월 2일, 자동차를 타고 마을로 향하던 중이었다. 고속도로가 깊은 숲을 가로지르는 지점에서 그는 길 한복판에 놓인 나무 밑동을 발견했다. 그때 함께 있던 커다란 개 두 마리가 사납게 짖어댔는데, 그 소리는 근처에 무언가 도사리고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만약 개들이 곁에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는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 후로 그는 충직하고 힘센 사냥개들을 최소 두 마리 이상 데리고 다니지 않고는 결코 밖을 나서지 않았다.

8월 5일과 6일에도 도로 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한 번은 총탄이 그의 자동차를 스치고 지나갔고, 또 다른 날에는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를 통해 숲속에 불경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해야 했다.

8월 15일, 나는 나를 몹시 동요하게 만든 광기 어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내용을 읽고 나니 에이클리가 그 고독한 침묵을 깨고 법의 도움이라도 요청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던 밤, 농가 밖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총알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열두 마리의 커다란 개 중 세 마리가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되었다. 길 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발톱 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그 사이로 월터 브라운의 발자국도 섞여 있었다. 에이클리는 도움을 요청할 개들을 더 부르기 위해 브래틀버로로 전화를 걸려 했으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전화선이 끊겨 버렸다. 이후 그는 직접 차를 몰고 브래틀버로로 향했고, 그곳에서 전선 수리공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뉴페인의 북쪽, 인적이 끊긴 언덕을 지나는 구간에서 메인 케이블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그는 훌륭한 새 개 네 마리와 대형 사냥용 연발 소총에 쓸 탄약 몇 상자를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편지는 브래틀버로 우체국에서 작성되었으며, 지체 없이 나에게 전달되었다.

이 문제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어느덧 과학적인 탐구심을 넘어, 당혹스러울 만큼 개인적인 공포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다. 외딴곳에 홀로 떨어진 농가에서 지내는 에이클리가 걱정되었고, 그 기이한 언덕 사건에 나 역시 분명히 얽히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 자신조차 두려워졌다. 사건의 실체는 마치 나를 향해 손을 뻗어오는 듯했다. 그 존재가 나를 집어삼키고 말아버리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에이클리에게 보낸 답장에서 부디 도움을 요청하라고 재촉했다. 만약 그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도 넌지시 비쳤

다.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직접 버몬트로 찾아가겠다고도 했으며, 적절한 당국에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벨로스 폴스에서 온 전보 한 통뿐이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의 입장은 이해하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 스스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마라. 자칫하면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다. 설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헨리 에이클리

하지만 사건은 갈수록 심각해졌다. 전보에 답장을 보내자, 에이클리로부터 떨리는 필체의 쪽지 한 통이 날아왔다. 그 안에는 경악스러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전보를 보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보가 명백히 그에 대한 답장으로서 응했던 나의 편지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에이클리가 벨로스 폴스에서 급히 조사한 결과, 전보를 맡긴 사람은 기이할 정도로 목소리가 굵고 웅웅거리는, 모래빛 머리카락을 가진 낯선 사내라는 사실만 밝혀졌다. 그 이상의 정보는 알아낼 수 없었다. 점원은 에이클리에게 발신인이 연필로 휘갈겨 쓴 원본 내용을 보여주었으나, 그 필체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특히 서명이 잘못 적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두 번째 'E'가 빠진 'A-K-E-L-Y'라고 적혀 있었다.

불길한 추측들이 머릿속을 스쳤으나, 눈앞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추측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겨를이 없었다.

그는 죽어 나가는 개들에 대해, 그리고 새로 사들인 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달빛조차 없는 밤마다 벌어지는 총격전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도로와 농장 뒷마당에는 발톱 자국과 함께 브라운의 발자국, 그리고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발자국이 한두 개씩 섞여서 정기적으로 발견되곤 했다. 에이클리는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오래된 농장을 팔 수 있든 없든, 머지않아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들에게 가서 살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곳을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는 조금이라도 더 버텨보려 애써야 했다. 침입자들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시도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쩌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에이클리에게 즉시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를 직접 찾아가서, 그가 처한 절박한 위험을 당국에 증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답장에서 느껴지는 그의 태도는 이전의 반응과는 달리, 내 제안을 그리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다. 짐을 정리하고, 거의 병적으로 애착을 품어온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와 추측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러니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들거나,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온 동네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일 없이 조용히 떠나는 편이 낫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미 충분히 고초를 겪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다면 품위 있게 떠나고 싶어 했다.

이 편지는 8월 28일에 내게 도착했다. 나는 최대한 격려하는 내용을 담아 답장을 준비해 보냈다. 다행히 그 격려가 효과가 있었는지, 내 편지에 대한 답신을 보내온 에이클리의 보고에는 공포의 기색이 이전보다 덜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았다. 그저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 그 괴물들이 물러나 있는 것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구름이 짙게 깔린 밤이 많지 않기를 바랐으며, 달이 기울면 브래틀버로에 머물겠다는 막연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를 격려하는 글을 보냈다. 그러나 9월 5일, 내 편지와 배달 과정에서 엇갈린 것이 분명한 새로운 서신이 도착했다. 이 편지에는 도저히 희망적인 답장을 해줄 수가 없었다.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에, 떨리는 필체로 쓰인 그 글을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월요일

친애하는 윌마스에게,

지난번 편지에 덧붙이는, 다소 낙담스러운 추신이다. 어젯밤은 비는 내리지 않았으나 구름이 짙게 깔려 달빛조차 전혀 비치지 않았다. 상황은 꽤 나빠졌고,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것과는 달리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정이 지나자 무언가가 집 지붕 위로 내려앉았고, 개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일제히 달려 나갔다. 개들이 무언가를 물어뜯고 할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중 한 마리가 낮은 부속 건물에서 뛰어올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 지붕 위에서는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고,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충격적인 악취가 진동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총알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몸을 스치듯 지나갔다. 지붕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사이 개들이 흩어지자, 언덕에 사는 괴물들의 주력 부대가 집 근처까지 접근한 모양이다.

지붕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그 괴물들이 우주 날개를 이용해 조종하는 법을 더 잘 익히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 나는 불을 끄고 창문을 총구 구멍 삼아 활용했다. 개들을 맞히지 않을 만큼만 조준을 높게 잡고 집 주변을 향해 소총을 퍼부었다. 일단 소동은 일단락된 듯 보였다. 하지만 아침에 마당으로 나가 보니 커다란 핏물 웅덩이들이 보였고, 그 옆에는 내가 평생 맡아본 것 중 최악의 악취를 풍기는 녹색의 끈적한 물질들이 고여 있었다. 지붕 위로 올라가 보니 그 끈적한 물질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개 다섯 마리가 죽었다. 한 마리는 등에 총알을 맞은 것을 보니, 내가 조준을 너무 낮게 해서 실수로 쏜 것 같아 두렵다. 지금은 총탄에 깨진 창유리를 갈아 끼우는 중이며, 개를 더 데려오기 위해 브래틀버로로 갈 예정이다. 사육장 사람들은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중에 다시 편지를 남기겠다. 떠날 준비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면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지만 말이다.

급히—에이클리

에이클리가 내게 보낸 편지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인 9월 6일,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무언가에 쫓기듯 휘갈겨 쓴

글씨였다. 그 필체는 나를 완전히 공포에 질리게 했고,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기억이 허락하는 한, 나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화요일

구름이 걷히지 않아 달빛을 볼 수 없었다. 설령 구름이 걷힌다 해도 달은 이미 기울어가는 중이었다. 집안에 전기 배선을 깔고 탐조등이라도 설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전선을 수리하자마자 그들이 곧장 끊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미쳐가는 것 같다. 내가 당신에게 써 보낸 모든 글이 사실은 꿈이거나 광기였을지도 모르겠다. 전에도 충분히 끔찍했지만, 이번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어젯밤 그들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 저주받은 윙윙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당신에게 차마 전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개들이 짖는 소리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한 번은 개 짖는 소리에 그 소리가 묻혔을 때, 어떤 인간의 목소리가 그들을 거들기까지 했다. 윌마스, 제발 이 일에 휘말리지 마라. 이건 당신이나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다.

그들은 이제 내가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나를 산 채로, 혹은 이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산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데려가려 한다. 단순히 유고스로 데려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하계 너머, 어쩌면 공간의 마지막 곡선 너머까지 말이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들이 제안한 그 끔찍한 방식으로 끌려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두렵다.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외진 곳이라, 머지않아 그들이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찾아올 것만 같다.

개 여섯 마리가 더 죽었다. 오늘 브래틀버로로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숲이 우거진 길목마다 무언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신에게 축음기 음반과 검은 돌을 보내려 했던 건 실수였다. 너무 늦기 전에 차라리 그 음반을 부숴버리는 게 낫겠다. 내일도 내가 이곳에 무사히 있다면 다시 편지를 쓰겠다. 내 책과 물건들을 브래틀버로로 보내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도망치고 싶지만, 내 마음속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 안전할 것 같은 브래틀버로로 잠시 빠져나갈 수는 있어도, 그곳에서도 이곳 집에서만큼이나 죄수처럼 갇혀 있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치려 해도, 결코 멀리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정말 끔찍하다. 제발 이 일에 엮이지 마라.

에이클리 올림

이 끔찍한 것을 받은 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에이클리의 정신 상태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편지의 내용은 완전히 광기에 사로잡힌 것이었으나,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떠올려 보면 그 표현 방식에는 기묘할 정도로 강력한 설득력이 실려 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에이클리가 내 마지막 편지에 답할 시간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과연 다음 날 답장이 도착했다. 하지만 새로 담긴 내용이 워낙 압도적인 탓에, 형식상 답변이라 할 수 있는 이전 편지의 쟁점들은 완전히 묻혀 버리고 말았다. 분명히 정신없이 서둘러 써 내려간 탓에 글씨는 휘갈겨져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요일

편지는 잘 받았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나. 다 소용없는 일이야. 나는 이미 완전히 체념했네. 그들을 뿌리칠 의지조차 남아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라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마음만 먹는다면 어떨까 싶지만, 그럴 수도 없네. 결코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나를 잡아낼 걸세.

어제 그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내가 브래틀버로에 머물고 있을 때 R.F.D. 집배원이 가져다주었다. 벨로스 폴스에서 발송된 타자 편지다. 그들이 나를 상대로 무엇을 하려는지 적혀 있는데, 차마 옮겨 적을 수가 없다. 너도 몸조심해라! 그 음반을 꼭 부숴버려라. 흐린 밤이 계속되고 있고, 달은 계속해서 기울고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가 있다면 좋으련만. 그러면 내 의지력도 좀 더 단단해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증거라도 있다면 모를까,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미친놈 취급할 게 뻔하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들에게 와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이미 모든 이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하지만 윌마스, 아직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네. 마음 단단히 먹고 읽게나. 분명 충격을 받을 테니까.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라네. 내가 직접 그 존재 중 하나를 보았고, 그 몸의 일부를 만지기까지 했으니 말일세. 세상에, 정말이지 끔찍했어! 물론 죽어 있는 상태였네. 개 한 마리가 물어온 것을 오늘 아침 개집 근처에서 발견했거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이 사실임을 증명하려고 나무 창고 안에서 그 사체를 보존하려 애써봤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자네도 알다시피, 강물 속에 나타났던 그 존재들도 홍수가 일어난 첫날 아침에만 잠시 보였을 뿐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가장 최악이라네. 자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두었지만, 필름을 현상해보니 나무 창고 풍경 말고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 대체 그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걸까? 나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고 만지기까지 했으며, 그것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도 남는다네. 분명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었을 텐데, 대체 어떤 종류의 물질이란 말인가? 그 형태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사람의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촉수들이 달려 있고, 피라미드 모양으로 겹겹이 쌓인 살덩어리나 굵고 밧줄 같은 덩어리들이 가득한 거대한 게와 같은 모습이었지. 그 초록색의 끈적한 액체는 그것의 피나 체액이었네. 그리고 지구에는 언제라도 그놈들이 더 나타날 수 있네.

월터 브라운이 사라졌다. 이 근처 마을의 평소 그가 머물던 곳 어디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내가 쏜 탄환 중 하나에 맞은 모양이다. 그 괴물들은 죽거나 다친 동족을 항상 멀리 끌고 가려 하는 듯했으니까.

오늘 오후 아무 문제 없이 마을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확실히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자신한 나머지, 점점 공세를 늦추기 시작하는 것 같아 두렵다. 지금 브래틀버로 우체국에서 이 글을 쓴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플레전트가 176번지에 사는 내 아들 조지 굿이너프 에이클리에게 편지를 보내다오. 하지만 이곳으로는 절대 오지 마라. 일주일 동안 내 소식이 없다면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신문에 무슨 소식이 뜨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내게 남은 의지력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수단 두 가지를 써보려 한다. 우선 저 괴물들에게 독가스를 시도할 생각이다. 필요한 화학 물질은 이미 준비해 두었고, 나와 개들을 위해 방독면도 만들어 놓았다. 만약 이 방법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보안관에게 알릴 것이다. 그들이 원한다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둬도 좋다. 다른 괴물들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나을 테니까.

어쩌면 집 주변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그들이 주목하게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른다. 흔적은 희미하지만, 매일 아침이면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내가 어떻게든 발자국을 조작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들 모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니 말이다.

주 경찰관 한 명을 이곳에서 하룻밤 묵게 해 직접 확인하도록 해봐야겠다. 하지만 그 괴물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날 밤만큼은 나타나지 않으려 버틸지도 모를 일이다. 밤마다 전화를 걸려고 하면 누군가 선을 끊어 놓는다. 선로 수리공들은 이 상황이 매우 기이하다고 여기

며, 내가 직접 선을 끊었다고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나의 증인이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벌써 일주일 넘게 끊어진 선을 고치려 애쓰지도 못하고 있다.

무지한 사람들을 불러 그 공포가 실재한다는 증언을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 모두 비웃을 뿐이다. 게다가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 집 근처를 멀리해 왔기에, 최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저 초라한 농부들 중 누구 하나 내 집 근처 1마일 이내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편 배달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하며 나를 놀려대곤 하는데, 아, 세상에! 그 일이 얼마나 실재하는지 그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배달부에게 발자국을 보여주어 눈치채게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오후에나 오는데 그때쯤이면 발자국은 대개 사라지고 없다. 만약 상자나 쟁반 같은 것으로 발자국을 덮어두어 보존하려 한다면, 그는 분명 내가 꾸며낸 장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은둔자처럼 지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전처럼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으니 말이다. 나는 무지한 이들이 아니라면, 그 검은 돌이나 코닥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 음반을 틀어주는 일을 누구에게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른 이들이라면 이 모든 일이 조작된 것이라며 비웃기만 했을 테니까. 하지만 사진만큼은 언젠가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형체를 만든 존재 자체는 사진에 찍히지 않더라도, 발톱 자국만큼은 사진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 말이다. 오늘 아침, 그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누구라도 그것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상관없다. 내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정신병원이라도 다른 곳보다는 나을 것이다. 의사들이 내가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 나를 구할 유일한 길이다.

조만간 소식이 없으면 내 아들 조지에게 편지를 쓰게나. 그럼 이만. 그 음반은 부숴버리고, 이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말게.

에이클리 드림.

이 편지를 읽고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다. 무엇이라 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그저 두서없는 조언과 격려의 말들을 휘갈겨 쓴 뒤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나는 에이클리에게 당장 브래틀버로로 거처를 옮겨 당국의 보호를 받으라고 재촉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축음기 음반을 들고 그 마을로 찾아가, 그가 제정신이라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괴한 존재의 출현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라고도 썼던 것 같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는 에이클리가 말하고 주장해 온 모든 내용을 거의 온전히 믿고 있었다. 다만 그가 죽은 괴물의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은 자연의 기이한 변덕 때문이 아니라, 당시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저지른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1928년 9월 6일 목요일, 버몬트주 타운젠드.

친애하는 윌마스에게—

그동안 내가 보낸 그 어리석은 글들에 대해, 이제는 당신을 안심시켜 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내

가 묘사한 현상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했던 나의 겁에 질린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은 충분히 실재하며 중대한 것들입니다. 나의 잘못은 그 현상들을 향해 비정상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묘한 방문객들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으며,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어젯밤, 이 대화는 마침내 실재하는 사건이 되었다. 내가 보낸 특정한 신호에 응답하여, 나는 저 바깥에서 온 전령을 집 안으로 들였다. 서둘러 덧붙이자면, 그는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감히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을 내게 들려주었다. 또한 이 행성에 비밀스러운 식민지를 유지하려는 바깥 것들의 목적을,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 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들이 인류에게 무엇을 바쳤는지, 그리고 지구와 관련하여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사악한 전설들은, 사실 은유적 표현을 무지하게 오해한 결과일 뿐인 듯하다. 물론 그 은유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화적 배경과 사고방식에 의해 형성된 언어다. 나 역시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의 추측 또한 글을 모르는 농부나 야만적인 인디언들의 짐작만큼이나 터무니없이 빗나갔다. 내가 병적이고 수치스러우며 치욕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상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정신을 확장하고 심지어 영광스럽기까지 한 것이었다. 내가 이전에 내렸던 평가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존재를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치려는 인간의 영원한 본능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했다.

밤마다 벌어진 그 격렬한 충돌 속에서, 내가 이 이질적이고 믿기 힘든 존재들에게 입혔던 상처들이 이제는 후회로 남는다. 처음부터 그들과 평화롭고 이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원망을 품지 않는다. 그들의 감정 체계는 인간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불행한 것은 그들이다. 버몬트에서 인간 대리인을 구했을 때, 하필이면 아주 질 낮은 인간들을 만났으니 말이다. 고(故) 월터 브라운이 대표적인 예다. 그 때문에 나는 그들에 대해 엄청난 편견을 갖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인간을 의도적으로 해친 적이 없다. 오히려 우리 인류로부터 잔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감시당해 온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들을 추적해 다른 차원의 괴물 같은 존재들을 위해 해를 끼치는 데 혈안이 된, 사악한 인간들의 비밀 결사가 존재한다. (신비학에 조예가 깊은 당신이라면, 내가 이들을 하스터나 황색 표식과 연관 지어 말할 때 내 의도를 바로 이해하리라 믿는다.) 바깥 것들이 취하는 극단적인 예방 조치들은 평범한 인류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침략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편지를 훔쳐 간 것도 바깥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악의적인 결사의 사절들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바깥 것들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평화와 간섭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적인 교류를 점차 넓혀가는 것뿐이다. 인류의 발명품과 장치들이 지식과 이동의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바깥 것들이 이 행성에 은

밀한 전초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지적 교류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계 존재들은 인류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며, 인류의 철학적·과학적 지도자 중 몇몇이 자신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지식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위험은 사라질 것이며, 만족스러운 공존의 방식이 확립될 것이다. 인류를 노예로 삼거나 타락시키려 한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는 발상일 뿐이다.

이 개선된 유대 관계의 시작으로, 바깥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선택했다. 이미 그들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나를 지구상의 주된 통역사로 삼은 것이다. 어젯밤 나는 엄청난 사실들을 전해 들었다. 그것은 시야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경이로운 정보들이었다. 앞으로도 구두나 서면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이 내게 전달될 것이다.

아직은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나갈 기회를 갈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특별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의 경험이라 여겨왔던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내 집이 포위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개들도 더는 경계할 일이 없어졌다. 공포가 머물던 자리에는 풍요로운 지식과 지적 모험이라는 축복이 내려앉았다. 다른 필멸자들은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할 귀한 선물이다.

바깥 것들은 아마도 시공간의 안팎을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유기체일 것이다. 이들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거대한 종족의 일원이며, 우

리가 아는 다른 모든 생명체는 그저 이들로부터 퇴화한 변종에 불과하다. 이들을 구성하는 물질에 그런 용어를 붙일 수 있다면, 이들은 동물이라기보다는 식물에 가깝고 버섯과 같은 구조를 지녔다. 물론 엽록소와 유사한 물질을 품고 있으며 매우 독특한 영양 섭취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식물성 균류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이들의 본질은 우리 우주와는 전혀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의 진동수조차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아는 우주의 일반적인 카메라 필름이나 사진판으로는 그 모습을 담아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적절한 지식만 있다면, 실력 있는 화학자라면 누구나 그들의 형상을 기록할 수 있는 사진 유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속의 생물들은 열도 없고 공기도 없는 우주의 공허를 온전한 육신 그대로 가로지를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그 변종 중 일부는 기계적 장치나 기이한 수술적 이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버몬트의 변종이 가진 특징인, 에테르의 저항을 견뎌내는 날개를 지닌 종은 극히 드물다. 구세계의 어느 외딴 봉우리에 거주하는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곳에 왔다. 이들이 동물이나 우리가 물질이라 이해하는 구조와 외형적으로 닮은 것은, 혈연관계가 가까워서가 아니라 평행 진화의 결과다. 이들의 뇌 용량은 현존하는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거대하다. 비록 우리 산악 지대에 사는 날개 달린 종들이 결코 가장 고도로 발달한 부류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들은 주로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지만, 원시적인 형태의 발성 기관도 갖추고 있다. 이들에게 수술이란 매우 능숙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가벼운 수

술만 거치면 여전히 언어를 사용하는 생물들의 말을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다.

그들의 주된 거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빛조차 거의 들지 않는 행성이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 해왕성을 넘어 태양으로부터 아홉 번째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우리가 추론했듯이, 그곳은 고대의 금지된 문헌들 속에서 '유고스'라는 이름으로 신비롭게 암시된 바로 그 천체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곳은 정신적 교감을 원활히 하고자 우리 세계를 향해 사념이 기묘하게 집중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바깥 것들이 원할 때 천문학자들이 이 사념의 흐름에 충분히 민감해져서 유고스를 발견한다 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고스는 물론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이 존재들의 본진은 인간의 상상력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기이한 구조를 가진 심연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우주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시공간의 덩어리는, 그들이 속한 진정한 무한함 속에서는 단 하나의 원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류가 존재한 이래 고작 쉰 명 남짓한 이들에게만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그 무한함이 결국 나에게도 열리게 될 것이다.

윌마스, 처음에는 아마 내 말이 헛소리처럼 들리겠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내가 우연히 맞닥뜨린 이 거대한 기회의 가치를 깨닫게 될 걸세. 나는 자네가 이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해주길 바라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 다 적을 수 없는 수천 가지 이야기를 자네에게 직접 들려주어야만 하네. 예전에는 내게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었지. 하지

만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해졌으니, 기쁜 마음으로 그 경고를 거두고 자네를 초대하려 하네.

대학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곳으로 한 번 올라올 수는 없겠나? 자네가 올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울 것 같네.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 축음기 레코드와 내가 자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모두 가져오게나. 이 거대하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내려면 그것들이 꼭 필요할 테니까. 코닥 인화 사진들도 가져오면 좋겠네. 최근에 워낙 경황이 없었던 탓에, 원판 필름과 내가 뽑아둔 인화물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군. 하지만 이 막막하고 불확실한 자료들에 내가 덧붙일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 게다가 내 설명을 보충해 줄 경이로운 장치까지 준비해 두었으니 말이야!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으니, 부자연스럽거나 불쾌한 일은 겪지 않으실 겁니다. 그저 오시기만 하면 브래틀버로 역으로 제 차가 마중을 나갈 겁니다. 가능한 한 오래 머물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인간의 추측을 아득히 넘어선 것들에 대해 밤마다 토론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결코 무분별한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브래틀버로행 열차편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스턴에서 시간표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B. & M. 선을 타고 그린필드까지 간 다음, 남은 짧은 구간은 갈아타시면 됩니다. 보스턴에서 오후 4시 10분에 출발하는 편리한 열차를 타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린필드에는 저녁 7시 35분에 도착하며, 거기서 9시 19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타면 브래틀버로에

는 10시 1분에 도착합니다. 평일 기준입니다. 날짜를 알려주시면 역으로 차를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타이핑한 편지라 양해를 구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 최근 들어 손이 자꾸 떨려서 긴 글을 직접 써 내려갈 기력이 없군요. 어제 브래틀버로에서 새로운 코로나 타자기를 하나 장만했는데, 아주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곧 당신을 만나, 축음기 레코드와 제 편지들, 그리고 코닥 인화물들을 모두 건네받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며,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헨리 W. 에이클리

앨버트 N. 윌마스 귀하에게,

미스카토닉 대학교

매사추세츠주 아캄

이 기이하고 뜻밖의 편지를 읽고, 다시 읽고, 또 곱씹으며 느낀 감정의 복잡함은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다. 앞서 나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졌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안도와 불안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무의식적인 감정들의 기저를 아주 투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우선, 이 편지의 내용은 그 이전에 겪었던 일련의 공포들과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상반되었다. 극심한 공포에서 냉정한 자만심, 심지어는 환희에 찬 기분으로 변해버린 심리 상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번개처럼 갑작스럽고도 완벽했다. 수요일에 그 광란에 찬 마지막 보고를 남겼던 이의 심리적 관점이, 그날 어떤 안도감을 주는 사실들이 밝혀졌든 간에 단 하루 만에 이토록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어떤 순간에는 서로 충돌하는 비현실감이 몰려와, 멀리서 전해 들은 이 환상적인 힘들의 드라마가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일종의 반쯤은 허구적인 꿈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러다 문득 축음기 레코드판이 떠올랐고, 나는 더욱 깊은 당혹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편지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나는 받은 인상을 되짚어보며, 그 충격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선, 에이클리가 이전에도 제정신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멀쩡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편지에 나타난 상황의 변화는 너무나 급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이클리 본인의 태도와 말투, 언어 습관이 변한 정도가 상식이나 예측의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다. 그 남자의 인격 전체가 마치 은밀한 변이를 일으킨 것만 같았다. 그 변이가 어찌나 깊은지,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모두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단어의 선택부터 철자법까지,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문체에 민감한 학자로서 나는 그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반응과 문장의 리듬감에서조차 깊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토록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정도라

면, 그를 뒤흔든 감정적 격변이나 깨달음은 분명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편지가 지극히 에이클리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기도 했다. 무한함을 향한 그 특유의 열정, 학구적인 호기심 또한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이 편지가 가짜라거나, 누군가 악의를 품고 그를 대신해 쓴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믿을 수 없었다. 오히려 직접 와서 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그의 초대는, 이 편지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토요일 밤, 나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대신 내가 받은 편지 뒤에 숨겨진 그림자와 경이로운 진실들을 곱씹으며 밤을 지새웠다. 지난 4개월 동안 들이닥친 괴물 같은 개념들을 감당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내 정신은, 이 놀라운 새 자료를 두고 의구심과 수용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그 과정은 이전에 겪었던 경이로운 사건들을 마주했을 때와 거의 흡사한 단계를 반복했다. 그러다 동이 트기 훨씬 전, 처음 느꼈던 당혹감과 불안은 어느덧 뜨거운 흥미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에이클리가 미쳤든 제정신이든, 혹은 완전히 변했든 아니면 단순히 안도하고 있는 것이든, 그가 위험천만한 연구 끝에 관점의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 전환은 그를 위협하던 위험—그것이 실재하든 환상이든—을 줄여주는 동시에, 우주적이고 초인적인 지식이라는 아찔하고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나의 열망도 그의 열망에 응답하듯 타올랐고, 나는 금기를 깨부수는 그 기괴한 전염성에 휩쓸리는 기분이 들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연 법칙이라는 미치도록 피로한 한계를 떨쳐 버리는 것. 광활한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것. 무한하고 궁극적인, 어둠에 잠긴 심연의 비밀에 다가가는 것. 분명 그런 일이라면 목숨과 영혼, 그리고 정신을 거는 가치가 충분했다. 게다가 에이클리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예전처럼 나를 멀리하라고 경고하는 대신, 오히려 나를 초대하기까지 했다.

그가 이제 내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온몸이 짜릿했다. 외계에서 온 사절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남자와 함께, 그 외롭고 최근 들어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농가에 앉아 있는 상상만으로도 마비될 듯한 매혹을 느꼈다. 에이클리가 이전의 결론들을 요약해 둔 그 끔찍한 기록과 편지 더미를 곁에 둔 채 말이다.

일요일 늦은 아침, 나는 에이클리에게 전보를 보냈다. 그에게 괜찮다면 다가오는 수요일인 9월 12일에 브래틀버로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서 내가 바꾼 것은 오직 한 가지, 열차를 고르는 문제뿐이었다. 솔직히 말해, 그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버몬트 지역에 밤늦게 도착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고른 열차를 타는 대신, 역에 전화를 걸어 다른 일정을 짰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8시 7분(표준시) 보스턴행 열차를 타면, 9시 25분 그린필드행 열차로 갈아탈 수 있었다. 그렇게 하면 정오 12시 22분에 그린필드에 도착한다. 이 일정은 오후 1시 8분에 브래틀버로에 도착하는 열차와 정확히 맞물렸다. 에이클리를 만나 그와 함께 비밀을

간직한 채 빽빽하게 들어선 언덕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생각하면, 밤 10시 1분에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한 시간대였다.

나는 전보를 통해 이 선택에 대해 언급했다. 다행히도 저녁 무렵에 답장이 도착했는데, 내가 머물게 될 예비 호스트도 그 결정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보낸 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정 만족스러움. 수요일 1시 8분 열차로 마중 나갈 것. 레코드와 편지와 인화물 잊지 말 것. 목적지는 비밀로 유지할 것. 엄청난 계시를 기대할 것.

에이클리

에이클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이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타운젠드 역에서 관청 전령을 통했든, 혹은 복구된 전화 서비스를 통했든, 이 편지는 반드시 그의 집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자, 그 난해한 편지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 내 무의식 속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사실 당시의 나로서는 설명하기 힘들 만큼 큰 안도감이었다. 그 의구심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주 깊고 길게 잠들었고, 그다음 이틀 동안은 다가올 일을 준비하느라 의욕적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수요일, 나는 약속한 대로 길을 떠났다. 가방 안에는 생필품과 과학적 자료들을 가득 채워 넣었다. 그 안에는 그 끔찍한 축음기 음반과 코닥 인화 사진들, 그리고 에이클리가 주고받은 편지 전문도 들어 있었

다. 요청받은 대로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설령 모든 일이 가장 순조롭게 풀린다 해도, 이 일은 철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외계의 존재들과 실제로 정신적 접촉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미 훈련을 거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마친 내 정신조차 아득해질 정도였다.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에게는 이 사실이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보스턴에서 기차를 갈아타고,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 잘 알지 못하는 서쪽 먼 곳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한 것이 공포였는지 아니면 모험에 대한 기대였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

월섬—콩코드—에이어—피치버그—가드너—애솔—

기차는 그린필드역에 7분 늦게 도착했지만, 다행히 북행 연결 급행열차가 연착되어 기다려 주고 있었다. 서둘러 갈아탄 뒤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른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나는 묘한 숨 가쁨을 느꼈다. 그곳은 늘 글로만 접했을 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미지의 땅이었다.

내가 평생을 보낸 기계화되고 도시화된 해안가나 남부 지역과는 전혀 달랐다. 내가 들어서고 있는 곳은 훨씬 더 고풍스럽고 원시적인 뉴잉글랜드였다. 현대 문명이 손을 댄 지역들처럼 이방인이나 공장의 매연, 광고판과 콘크리트 도로가 가득하지 않은, 때 묻지 않은 조상들의 뉴잉글랜드였다.

이곳에는 그 땅의 풍경에서 피어난 유일하고도 진정한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토착 삶의 기묘한 흔적들이 남아 있을 터였다. 그 깊은 뿌리는 기묘하고 오래된 기억들을 생생하게 유지하며, 어둡고 경이로우며 좀처럼 입에 담지 않는 믿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토양을 비옥하게 가꾸고 있었다.

때때로 햇빛에 반짝이는 푸른 코네티컷강이 눈에 들어왔고, 노스필드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 강을 건넜다. 앞쪽으로는 초록빛의 기묘한 언덕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장이 다가와 말을 건네준 덕분에 내가 마침내 버몬트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차장은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돌려놓으라고 일러주었다. 북부의 산악 지대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서머타임 같은 복잡한 시간 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계를 돌리는 순간, 마치 달력마저 한 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열차는 강줄기를 따라 바짝 붙어 달렸다. 강 건너 뉴햄프셔 쪽으로는 가파른 완타스티켓 산의 능선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산에는 기이하고 오래된 전설들이 얽혀 있었다. 이윽고 왼쪽으로 거리들이 나타났고, 오른쪽 강물 사이로는 초록빛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줄지어 나갔고, 나도 그들을 따라갔다. 열차가 멈춰 섰다. 나는 브래틀버로 역의 긴 승강장 지붕 아래로 내려섰다.

줄지어 대기 중인 자동차들을 훑어보며, 나는 어떤 차가 에이클리의 포드일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이기도 전에 상대가 내

정체를 알아차렸다. 나를 맞이하려 다가온 이는 에이클리 본인이 분명 아니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내가 정말 아컴에서 온 앨버트 N. 윌마스 씨인지 부드러운 말투로 물었다. 사진 속 수염이 덥수룩하고 백발이 성성하던 에이클리와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훨씬 젊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으며, 옷차림 또한 유행을 따르고 있었다. 얼굴에는 짙고 짧은 콧수염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교양 있는 목소리에는 묘하고도 불쾌할 만큼 익숙한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내 기억 속 어디에서도 그 정체를 확실히 찾아낼 수는 없었다.

그를 살펴보니, 그는 내가 곧 머물게 될 에이클리의 친구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에이클리를 대신해 타운젠드에서 내려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에이클리가 갑작스러운 천식 증세로 고생하는 바람에, 바깥 공기를 쐬며 여행을 떠날 기력이 없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니, 나의 방문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스스로 노이스라고 밝힌 이 남자가 에이클리의 연구와 발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그의 태도가 지나치게 격식 없는 것으로 보아, 에이클리와는 별로 깊은 관계가 없는 외부인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에이클리가 워낙 은둔자처럼 지냈던 것을 떠올리면, 그에게 이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구심이 들긴 해도 그가 가리키는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

차는 에이클리의 설명에서 상상했던 작고 오래된 모델이 아니었다. 대신 최근에 나온 아주 크고 깨끗한 신형 차량이었다. 노이스의 소유인 듯한 그 차에는 매사추세츠 번호판이 달려 있었는데, 그해의 우스꽝스러운 문양인 '성스러운 대구'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이 안내인이 타운젠드 지역을 잠시 방문한 여름 휴양객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노이스는 내 옆자리 차에 올라타자마자 곧장 시동을 걸었다. 그가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 다행이었다. 묘하게 긴장된 공기 탓에 나 역시 입을 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덕을 올라 오른쪽으로 꺾어 대로로 들어서자, 오후의 햇살을 머금은 마을의 풍경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마을은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뉴잉글랜드의 오래된 도시들처럼 나른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붕과 첨탑, 굴뚝과 벽돌 담장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그 윤곽은, 내 혈관 깊숙이 흐르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감정의 현을 건드렸다. 나는 직감했다. 이곳은 켜켜이 쌓인 시간의 퇴적물로 인해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어느 지역의 입구라는 것을. 그곳은 오래되고 기이한 것들이 한 번도 방해받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자라날 기회를 얻어온 땅이었다.

브래틀버로를 벗어나자 억눌린 듯한 기분과 불길한 예감이 더욱 커졌다. 산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시골 풍경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록빛 능선과 화강암 절벽이 나를 압박하며 위협하는 듯했다. 그곳에는 인간에게 적대적일지도,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를,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온 불길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한동안 우리는 북쪽의 이름 모를 산맥에서 흘러내려 오는 넓고 얕은 강줄기를 따라 이동했다. 동행이 이 강이 웨스트강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몸서리치며 전율했다.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홍수가 지나간 뒤, 기괴하고 게를 닮은 생명체 중 하나가 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했다.

주변 풍경은 점차 황량해졌고, 사람의 발길도 뜸해졌다. 언덕 곳곳에는 옛 시절의 유물 같은 고풍스러운 지붕 덮인 다리들이 기괴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강을 따라 평행하게 뻗은, 반쯤 버려진 철길에서는 형체조차 불분명한 황폐한 기운이 배어 나오는 듯했다. 거대한 절벽이 솟아오른 선명한 계곡들이 장엄하게 펼쳐졌고, 능선을 타고 올라온 푸른 숲 사이로 뉴잉글랜드의 태고적 화강암이 회색빛의 엄숙한 자태를 드러냈다. 길 없는 수천 개의 봉우리 속에 감춰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밀들을 품은 채, 거친 물줄기들이 계곡을 가로질러 강으로 세차게 쏟아져 내렸다. 이따금 숲의 울창하고 단단한 품을 뚫고 좁고 반쯤 가려진 길들이 갈라져 나왔다. 그 원시적인 나무들 사이에는 태고의 정령들이 군대처럼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이 풍경을 마주하며 나는 에이클리가 바로 이 길을 달릴 때,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떠올렸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뉴페인의 예스럽고 아름다운 마을은, 인간이 정복과 점유를 통해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세상과 우리를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 고리였다. 그 마을을 지나치자마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실재하는 것들,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인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애착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기묘하고도 고요한 비현실의 세계로 발을 들였다. 주인 없는 초록빛 봉우리와 반쯤 버려진 계곡 사이로, 리본처럼 좁은 길은 마치 의지를 가진 존재가 변덕을 부리듯 오르내리며 구불구불 이어졌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가끔 마주치는 외딴 농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움직임 외에, 내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어둑한 숲속 수많은 숨겨진 샘에서 흘러나오는 기괴한 물줄기의 음산한 물소리뿐이었다.

낮게 솟은 돔 형태의 언덕들이 눈앞에 너무도 가깝고도 친밀하게 다가오자,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언덕의 경사는 내가 전해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급격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아는 평범한 세상의 풍경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이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사면의 울창한 숲속에는 외계의 믿기 힘든 존재들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언덕의 윤곽 그 자체조차 기이하고 아득한 세월 속에 잊힌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마치 드물고 깊은 꿈속에서나 겨우 살아 숨 쉬는, 전설 속 거인 종족이 남겨놓은 거대한 상형문자처럼 말이다.

과거의 모든 전설과 헨리 에이클리의 편지 및 증거물들이 암시했던 경악스러운 가설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점점 더 커지는 위협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방문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이 전제하는 끔찍한 비정상성들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기이한 것을 탐구하려던 나의 열정마저 무색하게 만들 만큼, 서늘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안내인은 내 불안한 기색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길이 점점 거칠고 불규칙해지며 자동차의 움직임도 느려지고 덜컹거림이 심해지자, 간간이 던지던 그의 기분 좋은 말들이 끊이지 않는 대화로 이어졌다. 그는 이 지역의 아름다움과 기묘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내가 찾아갈 에이클리가 연구하는 민속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가 정중하게 묻는 질문들을 통해, 그는 내가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곳에 왔으며 꽤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이클리가 마침내 도달한 지식의 깊이와 그 끔찍한 본질이 무엇인지는 전혀 짐작조차 못 하는 눈치였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쾌활하고 평범하며 세련되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안심시켜 주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산과 숲이 뒤엉킨 미지의 황야를 향해 덜컹거리며 굽이굽이 나아갈수록 나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꼈다. 때때로 그는 내가 이 지역의 괴기스러운 비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떠보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그가 말을 건넬 때마다 목소리에 담긴 그 모호하고도 짓궂으며 당혹스러운 친근함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 목소리는 분명 교양 있고 건실한 느낌을 주었으나, 결코 평범하거나 건강한 친근함은 아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어딘가 잊힌 악몽과 연결 지었고, 만약 그 정체를 알아차리게 된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다. 만약 발길을 돌릴 만한 타당한 이유라도 있었다면, 나는 진작에 방문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그럴 수도 없었다. 나는 일단 도착한 뒤에 에이클리와 냉철하고 과학적

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우리가 기괴한 곡선을 그리며 오르내리던 그 최면적인 풍경 속에는, 기묘할 정도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우주적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뒤편의 미로 속에 시간은 이미 길을 잃고 사라진 듯했다. 우리 주변에는 오직 요정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꽃피는 물결과, 이미 사라져 버린 수 세기 전의 아름다움만이 되살아나 펼쳐져 있었다. 백발의 노수림과 화사한 가을꽃이 가장자리를 장식한 순결한 목초지, 그리고 향기로운 덩굴과 초원이 수직 절벽을 이루는 거대한 나무들 사이로 드문드문 자리 잡은 작은 갈색 농가들이 보였다. 햇살조차 마치 특별한 대기나 숨결이 온 지역을 감싸 안은 듯, 초자연적인 광채를 띠고 있었다. 이탈리아 원시 화가들의 작품 배경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 마법 같은 풍경을 제외하면, 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소도마나 레오나르도 같은 화가들이 이토록 광활한 풍경을 구상하긴 했으나, 그것은 언제나 르네상스식 아케이드의 아치 너머 먼 곳에 머물러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그림 속을 온몸으로 파고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이 풍경이 지닌 마술적인 힘 속에서, 본래부터 알고 있었거나 혹은 물려받아 늘 헛되이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파른 오르막길 끝에서 둔각으로 굽어진 길을 돌자, 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왼쪽으로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 도로까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가장자리는 하얗게 칠한 돌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잔디밭 너머로는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규모와 우아함을 갖춘 2층 반 높

이의 하얀 저택이 솟아 있었다. 저택의 뒤편과 오른쪽으로는 헛간과 창고, 풍차들이 아케이드식 통로로 연결된 채 늘어서 있었다. 미리 받아 두었던 사진 덕분에 나는 그 집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도로 근처에 놓인 아연 도금 철제 우체통에 '헨리 에이클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으나, 딱히 놀랍지는 않았다. 저택 뒤쪽으로는 습지대와 듬성듬성 나무가 자란 평지가 한참 동안 이어졌고, 그 너머로는 울창한 숲이 뒤덮은 가파른 산등성이가 삐죽삐죽한 나뭇잎 꼭대기를 드러내며 솟아 있었다. 나는 저 산등성이가 다크 마운틴의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그 산의 중턱까지 올라온 상태였다.

노이스는 차에서 내려 내 여행 가방을 챙기더니, 자신이 먼저 들어가 에이클리에게 내가 도착했다고 알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곳에 중요한 용무가 있어 잠시밖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집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나는 차에서 내려 몸을 움직였다. 자리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기 전에 다리라도 좀 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에이클리의 편지에서 그토록 뇌리에 박히도록 묘사되었던 그 기괴하고도 끈질긴 괴롭힘이 벌어지는 현장에 막상 도착하자, 나의 초조함과 긴장감은 다시 정점에 달했다. 나는 앞으로 이어질 대화가 진심으로 두려웠다. 그 대화는 나를 이질적이고도 금기된 세계와 연결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기이한 존재와 가까이 마주하는 일은 영감을 주기보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공포와 죽음이 휘몰아치던 달 없는 밤

들이 지나간 뒤, 그 괴물 같은 발자국과 악취 나는 초록색 점액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 먼지 날리는 길목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에이클리의 개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바깥 것들이 그와 화해하자마자 개들을 전부 팔아치운 것일까? 에이클리가 마지막에 보낸, 평소와는 사뭇 다른 기묘한 편지에는 그 평화가 매우 깊고 진실한 것처럼 적혀 있었으나,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세상 물정에 어둡고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어쩌면 그 새로운 동맹의 이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고 불길한 흐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에 이끌리듯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그 끔찍한 증거들을 품고 있던 가루 날리는 도로가 보였다. 지난 며칠간 날씨가 건조했던 탓인지, 인적이 드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길 위에는 온갖 종류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나는 막연한 호기심을 느끼며 제각각인 흔적들의 윤곽을 하나씩 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이곳의 풍경과 기억이 불러일으키는 기괴한 망상이 머릿속을 헤집지 못하도록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장례식장 같은 정적,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의 낮고 희미한 물소리, 그리고 좁은 지평선을 가득 메운 초록빛 봉우리와 검은 숲이 우거진 절벽들은 무언가 위협적이고 불쾌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의식 속으로 어떤 형상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 형상을 마주하자 이전에 느꼈던 막연한 위협이나 망상 같은 것들은 실로 가볍

고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길가에 흩어진 여러 발자국을 그저 한가로운 호기심으로 훑어보고 있었다고 말했으나, 돌연 찾아온 마비될 듯한 공포의 돌풍이 그 호기심을 순식간에 집어삼켜 버렸다.

먼지 묻은 발자국들은 대체로 뒤섞여 겹쳐 있었기에 지나가는 이의 눈길을 끌 리 만무했다. 하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던 내 시선은 저택으로 이어지는 길이 대로와 만나는 지점 근처의 세부적인 흔적들을 포착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품은 소름 끼치는 의미를, 의심의 여지도 희망의 여지도 없이 깨달았다.

아, 에이클리가 보내온 바깥 것들의 발톱 자국이 담긴 코닥 사진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들여다보았던 것이 헛된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혐오스러운 집게발이 남긴 자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공포스러운 존재들이 이 행성의 생명체가 아님을 증명하듯,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뒤틀린 그 방향성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비로운 착각을 할 기회조차 내게는 남아 있지 않았다.

에이클리의 농가로 향하거나 농가에서 나오는, 흐릿하고 수많은 발자국들 사이로 불경스럽게 도드라진 흔적이 적어도 세 개는 있었다. 그것들은 분명 불과 몇 시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내 눈앞에 실재하는 객관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바로 유고스에서 온 살아있는 균류가 남긴 지옥 같은 발자국이었다.

비명을 지르기 직전, 나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었다. 사실 에이클리의 편지들을 정말 믿었다고 가정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 존재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들 중 일부가 그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하지만 안도감보다는 공포가 훨씬 강렬했다. 우주 저 먼 심연에서 온 생명체가 남긴 발톱 자국을 처음 마주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노이스가 문을 열고 나와 활기찬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친절한 친구는 에이클리가 금기된 영역을 파헤치며 마주했던, 그 심오하고도 경악스러운 탐구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에이클리는 나를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노이스가 서둘러 전해왔다. 다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천식 발작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기 어려울 것 같았다. 발작이 시작되면 증세는 무척 심해졌고, 늘 기력을 앗아가는 열과 전신 쇠약이 뒤따랐다. 발작이 지속되는 동안 에이클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아졌고, 몸놀림은 매우 서툴고 힘이 없었다. 발과 발목까지 부어올라, 마치 통풍에 걸린 노인처럼 붕대를 감아야만 했다. 오늘 그는 상태가 꽤 좋지 않아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만큼은 간절했다. 나는 현관 왼쪽 서재에서 그를 만날 예정이었다. 그 방은 항상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에이클리는 눈이 매우 민감해서, 몸이 아플 때면 반드시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노이스가 작별 인사를 건네고 차를 몰아 북쪽으로 떠나자, 나는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를 위해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나는 주변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무엇이 이토록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함을 자아내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헛간과 창고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정해 보였고, 넓고 허술한 차고 안에는 에이클리의 낡은 포드 자동차가 놓여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 기묘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보통 농장이라면 가축들이 내는 소리로 인해 어느 정도 소란스럽기 마련인데, 이곳에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암탉과 개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에이클리가 몇 마리 있다고 했던 소들은 아마 목초지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개들은 팔려 나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닭이 깍깍거리거나 짐승이 꿀꿀거리는 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이했다.

길을 따라 걷던 나는 잠시 머뭇거릴 뿐, 곧장 열려 있는 집 문 안으로 들어가 뒤로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데에는 상당한 심리적 결단이 필요했다. 막상 집 안에 갇히고 나니,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찰나의 순간 머릿속을 스쳤다.

그렇다고 해서 집이 시각적으로 조금이라도 불길해 보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아한 후기 식민지 양식의 복도는 매우 세련되고 아늑해 보였으며, 가구들을 갖춰놓은 주인의 교양 넘치는 안목도 엿보였다. 나를 도망치고 싶게 만든 것은 아주 미세하고도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어쩌면 코끝을 스친 기묘한 냄새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아무리 훌륭하고 오래된 농가라 해도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건 흔한 일이라는 사실을 나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며, 나는 노이스가 일러준 대로 왼쪽의 황동 걸쇠가 달린 흰색 6폭 문을 밀어 열었다. 방 안은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어두웠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 기묘한 악취가 더욱 짙게 풍겨왔다. 공기 중에는 마치 환청처럼 희미하고 불분명한 리듬이나 진동이 감도는 듯했다. 닫힌 블라인드 때문에 처음에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곧 무언가 사과하듯 컥컥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방 안쪽 어두운 구석에 놓인 커다란 안락의자로 시선을 옮겼다. 의자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남자의 얼굴과 손이 하얗게 번져 보였다. 나는 말을 걸려던 그 형체를 맞이하기 위해 곧장 의자 쪽으로 다가갔다. 빛이 워낙 희미했지만,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코닥 사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살펴보았기에, 짧게 깎은 백발이 섞인 수염과 풍파를 견뎌온 듯한 이 단단한 얼굴을 틀릴 리 없었다.

다시 그를 바라보자, 알아본 반가움 사이로 슬픔과 불안이 뒤섞여 밀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명 몹시 병든 사람의 것이었다. 팽팽하게 긴장된 채 굳어버린 표정과 깜빡임조차 없는 유리알 같은 눈동자 너머에는, 단순한 천식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겪은 끔찍한 경험들이 남긴 정신적 압박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를 갉아먹었을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떤 인간이라도—설령 금단의 영역을 파헤친 이 용맹한 탐구자보다 더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않았겠는가? 기이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찾아

온 안도감은, 정신적 붕괴와도 같은 상태로부터 그를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섰다. 마른 손을 무력하게 무릎 위에 올려둔 모습에는 애처로움마저 감돌았다. 그는 헐거운 가운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부터 목 위까지 선명한 노란색 스카프 혹은 후드로 칭칭 감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가 나를 처음 맞이할 때와 똑같이, 거칠게 켁켁거리는 속삭임으로 말을 이어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회색빛 콧수염이 입술의 움직임을 전부 가리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 속삭임을 알아듣기가 무척 어려웠다. 게다가 목소리의 음색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무언가가 나를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자, 그가 하는 말의 뜻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의 말투는 결코 시골뜨기 같지 않았으며, 사용하는 언어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었다.

"윌마스 씨, 맞으시지요?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하는 점 부디 용서하십시오. 노이스 씨에게 들으셨겠지만, 몸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렇더라도 당신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적은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내일 몸이 좀 나아지면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가져오신 자료들은 다 챙겨 오셨겠지요? 코닥 인화물과 기록물들 말입니다. 노이스 씨가 복도에 당신의 여행 가방을 두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밤은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군요. 방은 위층, 바로 이 방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 끝에 욕실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식사는 오른쪽 문을 지나 식당에 차려 두었습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 드십시오. 내일은 좀 더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기운이 없어 손 하나 까딱하기가 힘드군요."

"편히 계세요.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져온 편지나 사진, 음반들을 여기 탁자 위에 꺼내 두셔도 좋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니까요. 저기 구석 선반 위에 있는 축음기도 보시다시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발작은 예전부터 겪어 와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저 밤이 되기 전, 조용히 얼굴이나 보러 들러 주세요. 그러고 나서 편하실 때 들어가 쉬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쉬겠습니다. 평소처럼 밤새 여기서 잠을 잘지도 모르겠군요. 아침이 되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일들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한 이 일이 얼마나 경이롭고도 거대한 일인지 당신도 알고 계시겠지요. 이 지구상의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지만, 우리 앞에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식의 심연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과학이나 철학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초월한 세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물체와 힘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도움만 있다면 나는

시간을 앞뒤로 넘나들며, 아득한 과거와 미래의 지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존재들이 과학을 얼마나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렸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정신과 육체를 이용해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행성은 물론, 다른 별과 은하계까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여정은 유고스입니다. 그 존재들이 완전히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세계지요. 유고스는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 끝에 걸쳐 있는 기이하고 어두운 구체로, 아직 지구의 천문학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당신에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때가 되면 그곳의 존재들이 우리를 향해 사념의 흐름을 보내어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인간 협력자 중 한 명을 통해 과학자들에게 힌트를 줄 테니까요."

"유고스에는 거대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내려 했던 그 표본처럼, 검은 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계단식 탑들이 층층이 늘어서 있지요. 그 표본은 바로 유고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곳의 태양은 그저 별 하나가 빛나는 것만큼이나 희미하게 빛나지만, 그곳의 존재들에게 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빛보다 훨씬 섬세한 다른 감각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거대한 저택이나 신전을 지을 때 창문조차 만들지 않습니다. 빛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움직임을 방해하며, 감각을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들이 원래 살던 곳, 시공간 너머의 검은 우주에는 빛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고스를 방문하는 일은 정신이 나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미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저 신비롭고 거대한 사

이클롭스식 교량 아래로는 검은 타르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리들은 저 존재들이 궁극의 공허로부터 유고스로 건너오기 훨씬 전, 이미 멸종하여 잊힌 어느 고대 종족이 세운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기괴한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단테나 포에 버금가는 문학적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균류 정원과 창문 없는 도시들이 가득한 그 어두운 세계가 사실은 그리 끔찍한 곳은 아니라는 점을 말이야.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아마 태고의 시대에 그 존재들이 이 세계를 처음 탐험했을 때도, 이 세계가 똑같이 끔찍해 보였을 걸세. 그들이 전설적인 크툴루의 시대가 끝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네도 알지 않나. 수면 위에 떠 있던 시절의 가라앉은 르리에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을 테고. 그들은 땅속에도 머물러 왔네. 인간은 전혀 알지 못하는 통로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바로 여기 버몬트의 언덕들에도 연결되어 있지. 그 지하에는 미지의 생명체들이 사는 거대한 세계들이 있네. 푸른 빛이 감도는 크난, 붉은 빛이 감도는 요스, 그리고 빛 한 점 없는 검은 공간인 응카이가 바로 그것이라네. 그 무시무시한 사사토구아도 응카이에서 왔지. 자네도 들어봤을 거야. 프나코틱 원고와 네크로노미콘,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대제사장 클라카시-톤이 보존해 온 코모리온 신화 체계에 언급된, 형체 없이 두꺼비처럼 생긴 그 신성한 괴물을 말일세."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나누기로 하죠. 지금쯤이면 벌써 네 시나 다섯 시쯤 되었을 겁니다. 우선 가방에서 먹을 것을 꺼내 한 입

이라도 먹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나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주인의 말에 따르기 시작했다. 가방을 가져와 필요한 물건들을 꺼내 내려놓은 뒤, 마침내 나에게 배정된 방으로 올라갔다. 길가에서 보았던 그 발톱 자국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탓인지, 에이클리가 속삭이듯 써 내려간 문장들은 나를 기묘하게 뒤흔들었다. 게다가 버섯 같은 생명체들이 사는 미지의 세계, 금기시된 유고스에 대해 그가 마치 잘 안다는 듯이 암시를 던질 때면,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소름이 끼쳤다. 에이클리의 병세가 무척 안타까웠지만, 그의 쉰 목소리에는 가련함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구석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가 유고스와 그곳의 검은 비밀에 대해 그토록 탐닉하며 즐거워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방은 아주 쾌적하고 가구도 잘 갖춰져 있었다. 퀴퀴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무언가 불길하게 진동하는 느낌도 전혀 없었다. 나는 방에 짐가방을 내려놓은 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에이클리를 만나 그가 준비해 둔 점심을 먹기로 했다. 서재 바로 옆에는 식당이 있었고, 그 너머로 주방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식탁 위에는 샌드위치와 케이크, 치즈가 푸짐하게 차려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찻잔과 받침대 옆에 놓인 보온병을 보니 따뜻한 커피도 잊지 않고 준비해 둔 모양이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커피를 한가득 따라 마셨다. 하지만 커피만큼은 요리 수준이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첫 술을

뜨자마자 희미하게 불쾌하고 매캐한 맛이 느껴졌고, 그 뒤로는 더 마시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내내, 어두운 옆방의 커다란 의자에 앉아 침묵을 지키고 있을 에이클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그에게 식사를 같이하자고 간청하러 갔으나, 그는 아직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며 속삭였다. 그 후로 그는 잠들기 직전에 맥아우유를 조금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 그가 섭취한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점심을 먹은 뒤, 나는 직접 그릇을 치우고 주방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겸사겸사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커피도 비워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스름한 서재로 돌아온 나는, 주인장이 앉아 있는 구석 자리 근처로 의자를 끌어다 놓았다. 그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 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커다란 중앙 탁자 위에는 여전히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기록물들이 놓여 있었지만, 당장은 그것들을 들춰볼 필요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기묘한 악취와 기분 나쁜 진동마저 잊어버리고 말았다.

에이클리의 편지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분량이 많았던 두 번째 편지에는 차마 글로 옮기거나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날 저녁, 외딴 언덕 사이 어둑한 방 안에서 속삭임처럼 들려온 이야기들에 비하면, 편지의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거친 목소리가 드러낸 우주적 공포가 얼마나 거대한지 나는 감히 암시조차 할 수 없다. 그는 이전에도 끔찍한 것들을 알고

있었으나, 바깥 것들과 계약을 맺은 뒤 깨닫게 된 사실들은 이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가 암시한 내용들을 결코 믿고 싶지 않다. 궁극적인 무한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 차원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공간의 우주가 처한 공포스러운 위치에 관한 이야기 말이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곡선과 각도, 그리고 물질적·준물질적 전자 구조로 이루어진 거대한 상위 우주를 구성하는, 끝없이 연결된 우주 원자들의 사슬 속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근원적 존재의 비의에 이토록 위험하게 다가선 적은 없었다. 형태와 힘, 그리고 대칭을 초월한 혼돈 속에서, 유기적인 뇌가 완전한 소멸에 이토록 가까워진 적 또한 없었다. 나는 크툴루가 처음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명멸했던 거대한 임시별들 가운데 절반이 어째서 타올랐는지 알아냈다. 정보를 제공해 준 이조차 겁에 질려 말을 멈추게 만들 만큼 암시적인 단서들을 통해, 나는 마젤란 성운과 구상 성운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도(道)라는 태고의 우화 속에 가려진 검은 진실을 짐작해 냈다. 델(Doel)의 본질은 명백히 드러났고, 틴달로스의 사냥개들이 가진 정수 또한 전해 들었다. 비록 그 근원까지는 아니었으나 말이다. 뱀의 아버지인 이그(Yig)의 전설은 더 이상 비유에 머물지 않았다. 또한 《네크로노미콘》이 아자토스라는 이름으로 자비롭게 가려두었던, 각진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괴물 같은 핵의 혼돈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나는 혐오감에 몸서리쳤다. 비밀스러운 신화 속 가장 추악한 악몽들이 구체적인 언어로 밝혀지는 과정은 충격적이었다. 그 적나라하고 병적인 증오심은 고대와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남긴 대담한 암시조차 뛰어넘는 것이었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에 이끌려, 이 저주받은 이야기들을 처음 속삭였던 자들이 분명 에이클리가 말하는 '바깥 것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어쩌면 그들은 에이클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외곽 영역을 직접 방문했을지도 모른다.

검은 돌에 관한 이야기와 그것이 암시하는 바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그 돌이 내 손에 끝내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 상형문자들에 대해 내가 품었던 추측들은 너무나도 정확했다. 하지만 에이클리는 이제 자신이 우연히 맞닥뜨린 그 악마적인 체계에 완전히 순응한 듯 보였다. 아니, 순응을 넘어 그 괴물 같은 심연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나는 그가 내게 마지막 편지를 보낸 이후로 또 어떤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었을지,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가 처음 언급했던 사절만큼이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했다. 머릿속의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다. 어두운 방 안을 채우는 그 기묘하고 끈질긴 악취와, 은밀하게 전해지는 진동의 기운을 두고 나는 온갖 엉뚱한 가설들을 세우며 괴로워했다.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에이클리가 예전의 그 밤들에 대해 써 보냈던 내용을 떠올리니, 달빛조차 들지 않을 그 밤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다. 다크 마운틴의 인적 없는 정상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숲 언덕, 그 뒤편에 몸을 숨기듯 자리 잡은 농가의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에이클리의 허락을 구한 뒤 작은 석유등을 켜서 불빛을 낮추고, 밀턴의 유령 같은 흉상 옆 멀찍이 떨어진 책장 위에 올려두었다. 하지만 나중에 나는 그 행동을 후회했다. 희미한 불빛 때문에 집주

인의 굳어버린 얼굴과 힘없이 늘어진 손이 지독하게 비정상적이고 시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처럼 보였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경악스러웠기에, 내일은 또 얼마나 심오한 비밀을 남겨두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마침내 다음 날의 화두가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그가 유고스로, 그리고 그 너머로 떠날 여정과, 어쩌면 나 또한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우주 항해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움찔하자, 그는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눈치였다. 내가 겁에 질린 기색을 보이자 그는 고개를 격하게 흔들며 웃었다. 이어서 그는 인류가 어떻게 성간 공간의 공허를 가로지르는, 불가능해 보이는 비행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여러 차례 성공해 왔는지에 대해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육신 전체가 그 여정을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깥것들이 지닌 경이로운 외과적, 생물학적,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인 기술 덕분에, 인간의 뇌를 육체라는 물리적 구조물에서 분리하여 운반할 방법이 발견된 듯했다.

뇌를 추출하는 방법은 해롭지 않았고, 뇌가 빠져나간 자리의 유기적 잔해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또한 존재했다. 알맹이만 남은 압축된 뇌 조직은 유고스에서 채굴한 금속으로 만든, 에테르가 새어 들지 않는 밀폐 실린더 안에 담겼다. 실린더 안에는 주기적으로 보충되는

액체가 채워져 있었다. 실린더 내부로 뻗어 나온 전극들은 정교한 장치들과 자유롭게 연결되었는데, 이 장치들은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라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었다.

날개 달린 균사 생명체들이 이 뇌 실린더를 손상 없이 우주 공간으로 운반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들의 문명이 닿은 행성이라면 어디든, 밀폐된 뇌와 연결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기능 장치들이 널려 있었다. 약간의 조정 과정만 거치면, 이 여행하는 지성체들은 시공간 연속체를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매 단계마다—비록 육신이 없는 기계적인 형태일지라도—완전한 감각과 언어 능력을 갖춘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축음기 음반을 들고 다니다가, 같은 제조사의 축음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재생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이었다.

이 방식이 성공할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에이클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일은 이미 수없이, 그리고 눈부시게 완벽하게 수행되어 오지 않았던가?

마침내 생기 없이 축 늘어져 있던 손 하나가 불쑥 떠오르더니, 방 건너편 높은 선반을 향해 뻣뻣하게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그곳에는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금속으로 된 원통형 물체들이 열두 개 넘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높이는 1피트 정도였고 지름은 그보다 조금 작았는데, 각 원통의 앞면 볼록한 부분 위에는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된 세 개의 기묘한 홈이 파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두 개의 홈이 뒤편에 놓인 기이한 기계 두 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기계들이 무엇을 하는 물건인

지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치 오한이 든 것처럼 몸을 떨었다. 이어 그 손은 훨씬 가까운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전선과 플러그가 달린 복잡한 장치들이 한데 엉켜 있었는데, 그중 몇몇은 선반 위 원통 뒤에 있던 기계들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윌마스, 여기에는 네 종류의 장치가 있네." 목소리가 속삭였다. "네 종류지. 각 장치는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니, 전부 열두 개라네. 저 위에 있는 원통들에는 네 부류의 존재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인간 세 명, 육체로는 우주를 항해할 수 없는 균류 생명체 여섯 존재, 그리고 해왕성에서 온 존재 두 존재(맙소사! 그들이 본래의 행성에서 지닌 육체를 자네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가 있지. 나머지는 은하계 너머, 아주 흥미로운 암흑 성계의 중심 동굴에서 온 존재들이라네.

라운드 힐 내부에 있는 주요 전초기지에서는 때때로 더 많은 원통과 기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지닌, 우주 너머의 뇌가 담긴 원통들이지. 그들은 저 머나먼 바깥 세계에서 온 동맹이자 탐험가들이라네. 그리고 그들에게 인상을 심어주거나,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전달하기 위한 특수 기계들도 있지. 그 방식은 그 존재들에게도 적합하고, 듣는 이의 유형에 따른 이해 능력에도 맞춘 것이라네.

라운드 힐은 여러 우주에 퍼져 있는 다른 존재들의 주요 전초기지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라네. 물론, 실험을

위해 내게 빌려준 것들은 그중에서도 비교적 흔한 부류뿐이지만 말이야."

"자, 내가 가리키는 기계 세 개를 가져와서 탁자 위에 올려두게. 앞면에 유리 렌즈가 두 개 달린 저 키 큰 것부터, 그다음은 진공관과 음향판이 달린 상자, 그리고 맨 위에 금속 원반이 붙은 기계 순이야. 이제 'B-67'이라는 라벨이 붙은 실린더를 가져오게나. 선반에 손이 안 닿으면 저 윈저 의자에 올라가서 꺼내고. 무겁다고? 상관없네! 번호는 꼭 확인하게, B-67이어야 해. 테스트용 기구 두 개에 연결된, 내 이름이 적힌 반짝거리고 새것 같은 실린더는 건드리지 말고. B-67을 방금 가져온 기계들 옆 탁자 위에 놓은 다음, 세 기계 모두 다이얼 스위치가 왼쪽 끝까지 돌아가 있는지 확인하게."

"자, 이제 렌즈 장치의 코드를 실린더 상단 소켓에 연결하게. 그렇지! 그다음 튜브 장치는 왼쪽 하단 소켓에, 디스크 장치는 바깥쪽 소켓에 연결하고. 이제 기계에 달린 다이얼 스위치를 전부 맨 오른쪽으로 돌리게나. 렌즈부터 시작해서 디스크, 그다음은 튜브 순서로 말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네. 내일은 다른 것들도 맛보게 해주지."

오늘날까지도 나는 왜 그 속삭임에 그토록 맹목적으로 복종했는지 알지 못한다. 당시 에이클리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제정신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이미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 기계적인 광대극은 미친 발명가나 과학자들이 흔히 부리는 변덕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전의 대화

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의구심을 품고 말았다. 속삭이는 자가 암시하는 내용은 인간의 믿음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은 그보다 훨씬 더 믿기 힘든 것들이 아니었나? 단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괴상함이 조금 덜해 보였을 뿐이었다.

혼란 속에서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때, 최근 실린더와 연결해 둔 세 대의 기계 모두에서 긁히는 듯한 소리와 윙윙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내 잦아들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인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누군가 교묘하게 조작한 라디오 장치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누군가 숨어서 나를 지켜보며 스피커에 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정확히 무엇을 들었는지, 내 눈앞에서 어떤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자면, 튜브와 음향 상자가 달린 그 기계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기계의 목소리는 매우 명확하고 지적이었으며, 덕분에 화자가 실제로 그 자리에 존재하며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목소리는 크고 금속질이었으며 생동감이 없었다. 소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세부적인 과정에서 기계적인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억양이나 감정 표현은 전혀 불가능했으나, 기계는 치명적일 만큼 정확하고 신중하게 긁히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말을 이어갔다.

"윌마스 씨," 목소리가 말했다. "놀라게 해드린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저 역시 당신과 같은 인간입니다. 비록 지금 제 육신은 이곳에서 동쪽으로 1.5마일 떨어진 라운드 힐 안에서, 적절한 생명 유지 처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휴식 중이지만 말입니다. 저 자신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제 뇌는 저 원통 안에 들어 있으며, 이 전자 진동기를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면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 허공을 가로질러 건너갈 예정이며, 에이클리 씨와 동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과도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군요. 저는 당신의 얼굴과 명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친구와 주고받은 서신들도 면밀히 지켜봐 왔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행성을 방문하는 바깥 것들과 협력 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히말라야에서 그들을 처음 만났고, 여러 방면에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다른 이들은 좀처럼 겪지 못할 경험들을 선사받았습니다."

"내가 서른일곱 개의 서로 다른 천체, 즉 행성과 암흑성, 그리고 그보다 더 정의하기 어려운 물체들을 거쳐 왔다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 우리 은하 밖의 천체가 여덟 개나 되고, 심지어 시공간의 굴곡진 우주 너머에 있는 천체가 두 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말일세. 이 모든 과정을 겪었음에도 나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네.

그들이 행하는 분열 기술은 너무나 정교해서, 뇌를 몸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단순히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무색할 정도라네. 방문자들은 뇌를 아주 쉽고 평범하게 추출해 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게다가 뇌가 몸 밖에 머무는 동안에는 육체가 결코 노화하지도 않는다네. 덧붙

이자면, 기계적인 기능과 보존액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며 공급받는 제한적인 영양분 덕분에, 뇌는 사실상 불멸에 가깝다네."

"무엇보다도, 당신이 에이클리 씨와 저와 함께 가기로 결정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문객들은 당신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춘 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이 그저 무지한 상상 속에서나 꿈꿔왔던 그 거대한 심연을 당신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만나는 일이 생경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런 사소한 일에 개의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노이스 씨도 동행할 것 같습니다. 분명 당신을 차로 이곳까지 데려다준 그분 말입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일행의 일원이었습니다. 에이클리 씨가 당신에게 보내준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바로 그였음을 당신도 알아차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리자, 화자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윌마스 씨, 이 일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덧붙이자면, 기이한 현상과 민속학을 사랑하는 당신 같은 분이라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전이 과정은 고통 없이 이루어지니까요. 게다가 완전히 기계화된 감각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아주 많습니다. 전극을 분리하고 나면, 그저 유독 생생하고 환상적인 꿈을 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 뿐입니다."

"자, 괜찮으시다면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죠. 안녕히 주무십시오. 스위치는 전부 왼쪽으로 돌려 놓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렌즈 기계는 가장 마지막에 돌려 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에이클리 씨. 우리 손님을 잘 대접해 주시고요! 자, 스위치 조작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게 전부였다. 나는 기계적으로 움직여 세 개의 스위치를 모두 내렸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정신이 아득했다. 에이클리가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탁자 위에 있는 장치들은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말이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별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사실, 어떤 말을 들었더라도 짓눌린 내 정신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내게 방에서 쓸 램프를 가져가도 좋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가 어둠 속에서 홀로 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짐작했다. 그에게는 분명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건장한 사람조차 진을 빼놓을 만큼 압도적이었으니까. 나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성능 좋은 손전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램프를 든 채 위층으로 올라갔다.

기묘한 악취와 정체 모를 진동이 감도는 그 아래층 서재를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 힘들을 떠올릴 때면, 끔찍한 공포와 위험, 그리고 우주적 이질감이 엄습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황량하고 외딴 지역, 집 바로 뒤편에서 위압적으로 솟아오른 검고 신비로운 숲의 경사면, 길 위에 찍혀 있던 발자국, 어둠 속에서 병든 채 움직임도 없이 속삭이던 존재, 지옥 같은 원통형 기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괴한 수술과 그보다 더 기괴한 항해로 나를 유혹하던 것들까지.

이 모든 일은 너무나 생소했고, 또 너무나 갑작스럽게 연달아 일어났다. 들이닥치는 충격은 마치 파도처럼 쌓여 나를 덮쳤고, 결국 나의 의지를 꺾어 놓았으며 육체적인 기력마저 앗아갈 듯 나를 몰아붙였다.

축음기 음반에 담긴 그 기괴하고 오래된 사바트 의식에서, 나의 안내자 노이스가 인간 제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유독 큰 충격이었다. 비록 그전부터 그의 목소리에서 어렴풋하고 불쾌한 친숙함을 느끼긴 했지만 말이다. 또 다른 충격은 내가 주인인 에이클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찾아왔다. 그 사실을 곱씹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놀라곤 했다. 서신을 통해 접한 에이클리는 본능적으로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으나, 지금의 그는 나에게 명백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병세는 마땅히 연민을 자아내야 했으나, 오히려 내게는 일종의 전율을 일으켰다. 그는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무기력했으며, 마치 시체 같았다. 게다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속삭임은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속삭임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어떤 소리와도 달랐다. 수염에 가려진 화자의 입술은 기묘할 정도로 미동도 없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천식 환자의 쌕쌕거림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잠재적인 힘과 멀리까

지 퍼져 나가는 전달력이 있었다. 방 건너편에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도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가끔은 그 희미하지만 꿰뚫는 듯한 소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억누른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왜 그런 것인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 음색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이제 와서 그 이유를 따져보자니, 노이스의 목소리가 막연하게 불길하게 들렸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무의식적인 친숙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암시하는 무언가를 내가 언제, 어디서 마주쳤는지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곳에서 단 하룻밤도 더 머물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공포와 혐오감 속에서 나의 학구적인 열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병적인 기괴함과 비정상적인 계시의 그물망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갈망뿐이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 기묘한 우주적 연결 고리가 실재한다는 사실은 분명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평범한 인간이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될 영역임이 틀림없었다.

불경스러운 기운이 나를 에워싸고, 숨이 막힐 듯 감각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잠을 자는 건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다. 나는 그저 등불을 끄고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분명 우스꽝스러운 짓이었으나, 알 수 없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했다. 오른손에는 가져온 리볼버를 꽉 쥐었고, 왼손에는 휴대용 손전등을 들었다. 아래층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나의 주

인은 얼마나 시체처럼 뻣뻣하게 앉아 있을지, 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평범한 소리에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 지역에 대해 나를 괴롭히던 또 다른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동물의 생명체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가축의 모습은커녕, 평소라면 들려야 할 야생 동물들의 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이 흐르는 불길한 소리만이 들릴 뿐, 그 정적은 기이했다. 마치 행성 간의 공간처럼 공허했다. 나는 이 지역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별에서 온, 형체조차 잡을 수 없는 재앙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옛 전설에 따르면 개나 다른 짐승들은 언제나 바깥 것들을 혐오했다고 했다. 나는 길 위에 남겨진 그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할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기치 못한 잠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일들 중 어디까지가 순전한 꿈이었는지는 묻지 마라. 만약 내가 어느 시점에 깨어나 무언가를 듣고 보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저 내가 그때 깨어난 게 아니라고 대답할 테니까. 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낡은 포드 자동차가 있던 창고로 비틀거리며 달려가, 그 오래된 차를 움켜쥐고 귀신이 나올 듯한 언덕 위를 미친 듯이 달리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말하겠지. 숲속의 미로 같은 길을 몇 시간이나 요동치며 굽이굽이 헤맨 끝에, 결국 내가 도착한 곳이 타운젠드라는 마을이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다.

물론 당신은 내 보고서에 담긴 다른 모든 내용을 부정하겠지요. 사진과 녹음된 소리, 실린더와 기계에서 흘러나온 소리,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증거가 행방불명된 헨리 에이클리가 나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순전한 기만이라고 단정 지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괴짜들과 공모하여 어리석고도 정교한 사기극을 벌였다고 암시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킨에서 특급 화물을 빼돌렸고, 노이스를 시켜 그 공포스러운 왁스 레코드를 만들게 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이스라는 인물은 아직까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클리의 집 근처 마을 어디에서도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지역을 자주 드나들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의 자동차 번호판을 기억해 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니, 어쩌면 차라리 그러지 않은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말하든, 그리고 나 스스로가 때때로 스스로에게 무엇이라 되뇌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반쯤 알려진 저 산맥의 어둠 속에는 혐오스러운 외부의 존재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인간 세상에 첩자와 사절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그런 존재들과 그들의 사절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다급히 보낸 이야기 덕분에 보안관과 수사대가 농가로 출동했을 때, 에이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서재 구석 안락의자 근처 바닥에는 그가 입던 헐거운 가운과 노란 스카프, 그리고 발에 감

았던 붕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외의 옷가지 중 무엇이 그와 함께 사라졌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개와 가축들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고, 집 외벽과 내부 벽면 곳곳에서 기묘한 총탄 흔적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외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린더나 기계 장치도, 내가 여행 가방에 담아왔던 증거물들도, 기괴한 악취나 진동의 느낌도 없었다. 길 위에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으며,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언뜻 목격했던 그 정체 모를 것들 또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탈출한 뒤 나는 브래틀버로에 일주일간 머물며 에이클리를 알던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캐물었다. 그 결과, 이 모든 일이 꿈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 에이클리가 개와 탄약, 그리고 화학 약품들을 기이하게 사들인 점이나 그의 전화선을 끊어버린 사실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아들을 포함해 그를 알던 모든 이들도, 에이클리가 가끔 기묘한 연구에 대해 언급했던 말들이 나름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번듯한 신분의 시민들은 그가 미쳤다고 믿었다. 그들은 보고된 모든 증거가 미친 자의 교활한 술책으로 꾸며낸 속임수이며, 아마도 별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저 없이 단정 지었다. 하지만 지위가 낮은 시골 사람들은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구석구석 뒷받침했다. 에이클리는 이 시골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검은 돌을 보여주었고, 그 끔찍한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 발자국과 윙윙거리는 목소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속 묘사와 똑같다고 말이다.

에이클리가 검은 돌을 발견한 이후, 그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광경과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목격된다는 말도 돌았다. 이제 그 집은 우편 배달부나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 되었다. 다크 마운틴과 라운드 힐은 둘 다 귀신이 나온다고 악명 높은 곳이었으나, 그곳을 가까이서 조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지역의 역사 속에서 토박이 주민들이 간혹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입증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에이클리의 편지에서 언급되었던 부랑자 기질의 월터 브라운마저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 심지어 범람한 웨스트강의 물이 불어났을 때, 기괴한 형체의 몸뚱이 중 하나를 직접 목격했다는 농부도 만났으나,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

브래틀버로를 떠날 때, 나는 다시는 버몬트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반드시 지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 거친 산맥들은 분명 공포스러운 우주 종족의 전초기지임이 틀림없다. 해왕성 너머에서 새로운 아홉 번째 행성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을 읽었을 때, 나는 내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 소식은 마치 그 존재들이 예언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전혀 의심치 않을 만큼 기괴하고도 절묘한 이름으로 그 행성을 '명왕성'이라 명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둠에 잠긴 유고스에 다름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곳의 괴물 같은 거주자들이 왜 하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 나는 이 악마 같은 생명체들이 지구와 그곳의 평범한 거주자들에게 해를 끼칠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서서히 실

행에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애쓰지만 그 노력은 헛될 뿐이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농가에서의 밤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나는 결국 괴기스러운 풍경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가는 악몽 섞인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무엇이 나를 깨웠는지는 아직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잠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이다.

처음 정신이 들었을 때 느낀 혼란스러운 감각은 문밖 복도에서 들려오는, 몰래 밟는 듯 끼익거리는 바닥 소리였다. 그리고 문고리를 서툴고 둔탁하게 만지작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이런 소음들은 거의 즉시 멎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아래층 서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들은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듯했다.

세 번째 목소리는 분명 실린더 속 분리된 뇌 중 하나와 연결된 기계식 발성 장치가 내는 소리였다. 윙윙거리는 소음이 그러했듯, 이 목소리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전날 저녁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너무나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억양도 감정도 없이 긁히고 달그락거리던 그 크고 금속성 짙은 무생물의 목소리, 그리고 감정이 배제된 채 정밀하고 신중하게 이어지던 그 음성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한동안 나는 그 긁히는 듯한 소리 너머에 있는 지성체가 이전에 나와 대화했던 바로 그 존재인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곧바로 이

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어떤 뇌든 동일한 기계식 발성 장치에 연결된다면 똑같은 질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이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언어나 리듬, 속도, 그리고 발음 정도뿐일 터였다.

이 기괴한 대화에는 실제 인간의 목소리도 두 개 섞여 있었다.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명 시골뜨기임이 분명한 사내의 투박한 말투였고, 다른 하나는 나의 이전 안내인이었던 노이스가 내는 세련된 보스턴식 말투였다.

튼튼하게 짜인 바닥재가 말을 교묘하게 가로막는 바람에, 나는 그 소리들을 간신히 잡아내려 애써야 했다. 동시에 아래층 방 안에서 무언가 크게 뒤척이고, 긁고, 발을 끄는 소리가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소리들을 듣고 있자면, 방 안이 살아있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겨우 분간해낸 몇몇 목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가 그곳에 있는 듯했다.

이 소동의 정확한 정체는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비교할 만한 적절한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가끔은 물체들이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방 안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듯 보였다. 발소리는 딱딱하고 매끄럽지 못한 표면이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닮아 있었다. 마치 뿔이나 딱딱한 고무 조각들이 서로 어긋나게 맞물리며 내는 소리 같았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비유를 들자면, 마치 사람들이 헐겁고 거친 나무 신발을 신고 반질반질한 나무 바닥 위를 비틀거

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 소리를 내는 존재들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혹은 어떤 모습인지는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머지않아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어떤 일관된 맥락도 찾아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에이클리와 내 이름 같은 단어들이 간혹 떠올랐다. 특히 기계적인 음성 발생기가 소리를 내뱉을 때면 더욱 그랬다. 하지만 문맥이 이어지지 않으니 그 단어들이 품은 진정한 의미를 알 길은 없었다. 오늘날 나는 그 단어들로부터 어떠한 확정적인 결론도 내리지 않으려 한다. 그 단어들이 내게 준 공포조차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불길한 암시를 던지는 수준에 그쳤다. 내 발밑에서는 분명 끔찍하고 비정상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충격적인 논의를 나누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에이클리는 그 바깥 것들이 우호적이라고 거듭 안심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하고 신성모독적인 기운이 내 온몸을 휘감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비록 목소리들이 내뱉는 말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각각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 말하는 이들의 음성 너머로 특유의 감정들이 읽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던 목소리 중 하나에서는 숨길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반면 기계적인 목소리는 인위적으로 크고 규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복종하며 애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노이스의 어조에서는 무언가 달래려는 듯한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그 외의 다른 목소리들은 도저히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었다. 에이클리의 익숙한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

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내 방의 두꺼운 바닥을 뚫고 들어올 리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들은 몇 안 되는 파편적인 단어들과 소리들을 기록해 보려 한다. 화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표시를 해두겠다. 처음으로 몇몇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들을 포착한 것은 바로 그 발성 기계로부터였다.

(음성 기계)

"...내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다... 편지와 기록들을 돌려보냈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 속아 넘어갔다... 보고 듣고 말았다... 빌어먹을... 결국은 비인격적인 힘이었을 뿐이다... 새것처럼 매끄러운 원통... 신이시여..."

(첫 번째 윙윙거리는 목소리)

". . . 우리가 멈춘 시간 . . . 작고 인간적인 . . . 에이클리 . . . 뇌 . . . 말하고 있는 . . ."

(두 번째 윙윙거리는 목소리)

"……니알라토텝…… 윌마스…… 기록과 편지들…… 저급한 사기극……"

(노이스)

". . . (발음할 수 없는 단어 혹은 이름, 아마도 N'gah-Kthun일 것이다) 해롭지 않다 . . . 평화롭다 . . . 몇 주 정도 . . . 연극적이다 . . . 전에도 말했었다 . . ."

(첫 번째 윙윙거리는 목소리)

". . . 아무런 이유도 . . . 원래 계획도 . . . 결과도 . . . 노이스가 라운드 힐을 감시할 수 있다 . . . 새 실린더 . . . 노이스의 자동차 . . ."

(노이스)

". . . 그래 . . . 다 네 것이야 . . . 여기 아래는 . . . 안식의 . . . 장소란다 . . ."

(분간할 수 없는 말소리가 여러 목소리로 동시에 들려온다)

(기묘하게 덜컹거리거나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포함하여, 수많은 발자국 소리)

(기묘하게 퍼덕거리는 소리)

(자동차 시동을 걸고 멀어지는 소리)

번역할 원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규칙에 따라 즉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괴한 농가, 악마가 깃든 듯한 언덕들 사이에 놓인 그 낯선 2층 침대 위에서 내가 들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몸을 뻣

뻣하게 굳힌 채 누워 있었다.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로, 오른손에는 리볼버를 꽉 쥐고 왼손에는 손전등을 움켜쥐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 정신은 완전히 깨어 있었으나, 정체 모를 마비 증세가 나를 짓눌렀다. 그 소리들의 마지막 잔향이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는 오래된 코네티컷식 시계가 나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느릿느릿 똑딱거리고 있었고, 마침내 잠든 이의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도 들려왔다. 에이클리는 그 기이한 만남을 마친 뒤 잠이 든 모양이었는데, 그에게는 그럴만한 휴식이 절실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다. 애초에 내가 들은 내용이, 이전에 얻은 정보들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나? 이름 모를 바깥 것들이 그 농가에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던가? 에이클리 역시 그들의 예기치 못한 방문에 당혹스러워했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대화 속에서 느껴진 무언가가 나를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 말들은 기괴하고도 끔찍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이 모든 것이 그저 꿈이기를, 제발 잠에서 깨어나 꿈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나의 의식은 아직 깨닫지 못했으나, 무의식은 분명 무언가를 포착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에이클리는 어떠한가? 그는 나의 친구가 아니었나. 만약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다면 그가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평온한 코골이 소리는,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나의 공포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했다.

에이클리가 이용당한 것은 아닐까? 그가 보낸 편지와 사진, 축음기 음반들이 나를 저 산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쓰인 것은 아닐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에, 그 존재들이 우리 둘 모두를 공통된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것은 아닐까? 나는 에이클리가 보낸 마지막 직전의 편지와 마지막 편지 사이에서 일어났을, 그 갑작스럽고도 부자연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다시금 떠올렸다. 본능이 내게 속삭였다. 무언가 지독하게 잘못되었다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과 같지 않았다. 내가 거절했던 그 톡 쏘는 커피 말이다. 만약 정체 모를 숨겨진 존재가 그 커피에 약을 타려 했던 것이라면?

나는 당장 에이클리와 이야기를 나누어 그가 이성을 되찾게 해야만 했다. 그들은 우주의 신비를 밝혀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그를 최면 상태에 빠뜨렸지만, 이제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너무 늦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그에게 탈출할 의지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의지를 만들어내리라. 설령 그를 설득해 데려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 혼자라도 떠날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의 포드 자동차를 내어준다면, 나는 그것을 몰고 브래틀버로의 차고에 세워두면 그만이었다. 창고에서 그 차를 보았을 때, 위험이 지나갔다고 판단했는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기에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리고 대화가 끝난 직후에 느꼈던 에이클리에 대한 일시적인 반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도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했다.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 시점에 그를 깨우는 것이 못내 마음 쓰였지만, 그래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는 아침까지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마침내 움직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자, 나는 근육의 통제력을 되찾으려 온 힘을 다해 몸을 뻗었다. 신중함보다는 충동에 가까운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몸을 일으킨 뒤, 모자를 찾아 쓰고 여행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극도로 긴장한 탓에 나는 오른손에 권총을 꽉 움켜쥐었다. 왼손으로 가방과 손전등을 모두 다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토록 철저히 대비했는지는 나조차 잘 모르겠다. 당시 나는 이 집의 유일한 다른 거주자를 깨우러 가던 중이었으니까.

삐걱거리는 계단을 따라 아래층 홀로 살금살금 내려가자, 잠든 이의 숨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가 내 왼쪽 방, 즉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실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오른쪽에는 아까 목소리들이 들려왔던 서재의 아가리 벌린 듯한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의 덜 닫힌 문을 밀어 열고,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조심스레 나아갔다. 마침내 불빛이 잠든 이의 얼굴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찰나, 나는 황급히 불빛을 돌리고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홀로 물러났다. 이번에는 본능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몸을 사려야만 했다. 소파 위에서 잠든 이는 에이클리가 아니라, 나의 옛 안내자였던 노이스였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를 깨우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만큼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복도로 나와, 노이스가 깨어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거실 문을 조용히 닫고 걸쇠를 걸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어두운 서재로 발을 들였다. 에이클리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그가 즐겨 사용하는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말이다.

내가 다가갈수록 손전등 불빛이 중앙의 커다란 탁자를 비추었다. 그 위에는 시각 및 청각 장치가 부착된 지옥 같은 원통형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언제든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음성 장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저것이 바로 그 끔찍한 회의 중에 대화를 나누던, 외피에 싸인 뇌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순간, 음성 장치를 연결해 저것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묘한 충동이 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은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이 살아있는 한, 내가 비춘 손전등 불빛과 발밑에서 들리는 미세한 바닥의 삐걱거림을 놓칠 리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감히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것은 아까 저녁에 선반 위에서 보았던, 에

이클리의 이름이 새겨진 매끄럽고 빛나는 원통형 장치였다. 주인은 내게 그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나는 나의 그 겁 많은 태도를 후회할 뿐이다. 차라리 용기를 내어 그 장치를 작동시켜 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약 그랬다면, 그 장치가 밝혀주었을 수많은 신비와 끔찍한 의구심, 그리고 정체에 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탁자 위에 두었던 손전등을 돌려 에이클리가 있을 법한 구석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잠든 사람이든 깨어 있는 사람이든, 커다란 안락의자에 앉아 있을 에이클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의자 위에는 그가 입던 익숙한 낡은 가운이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근처에는 아까 보았던 기묘한 노란 스카프와 커다란 발 붕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에이클리가 대체 어디로 갔는지, 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옷들을 갑자기 벗어던진 것인지 추측하며 망설이던 그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 안을 감돌던 기묘한 악취와 진동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그런 현상을 일으켰던 걸까? 문득 나는 그 냄새와 진동이 오직 에이클리의 근처에서만 느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기운은 그가 앉아 있던 곳에서 가장 강렬했으며, 그와 같은 방에 있거나 방 바로 문밖에 있을 때를 제외하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어두운 서재 안을 손전등으로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머리를 쥐어짜며 필사적으로 이유를 찾아보려 애썼다.

그 빛이 다시 빈 의자를 비추기 전에, 차라리 조용히 그곳을 떠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결코 조용히 떠나지 못했다. 나는 억눌린 비명을 내질렀고, 그 소리는 복도 건너편에서 잠든 파수꾼을 완전히 깨우지는 못했을지언정 분명 그를 뒤척이게 했을 것이다.

그 비명 소리, 그리고 여전히 끊이지 않고 들려오던 노이스의 코골이 소리가 내가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유령 같은 시골 풍경이 펼쳐진 땅, 저주를 중얼거리는 시냇물과 외로운 초록빛 언덕 사이에서 초우주적 공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그 산의 검은 숲 아래, 병적인 기운이 가득 찬 그 농가에서 내가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과 여행 가방, 그리고 리볼버를 떨어뜨리지 않은 게 기적일 정도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물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나는 그 방과 집에서 더 이상의 소란도 피우지 않은 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내 몸과 소지품을 챙겨 창고에 있던 낡은 포드 자동차로 기어 들어가듯 몸을 실었고,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 어디가 안전할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그 구식 자동차를 몰았다. 뒤이어 이어진 여정은 마치 에드거 앨런 포나 랭보의 글, 혹은 도레의 삽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망상과도 같았다. 그러다 마침내 타운젠드에 도착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만약 내 정

신이 아직 온전하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가끔은 앞으로 다가올 세월이 무엇을 가져올지 두렵기까지 하다. 특히 저 새로운 행성 명왕성이 그토록 기묘하게 발견된 이후로는 더욱 그렇다.

방 안을 한 바퀴 훑어본 뒤, 나는 다시 손전등 불빛을 빈 안락의자 쪽으로 돌렸다. 그러다 문득 의자 위에 놓인 물건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곁에 놓인 빈 가운의 헐거운 주름에 가려져 있어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다. 그 물건들은 총 세 개였는데, 나중에 조사관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는 결코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처음에 말했듯이, 그 물건들이 시각적으로 딱히 공포스러운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물건들을 보고 무엇을 추론하게 되느냐에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문득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내 모든 경험이 그저 꿈이나 신경쇠약, 혹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나조차 반쯤 동조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다.

그 세 가지 물체는 그 종류 중에서도 지독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그것들에는 기묘한 금속 집게가 달려 있었는데, 감히 짐작조차 하기 두려운 어떤 유기적 생명체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인 듯했다. 내 내면의 공포가 속삭이는 말과는 달리, 부디 그것들이 거장의 손길로 빚어낸 밀랍 공예품이기를—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랄 뿐이다.

맙소사! 그 불길한 악취와 진동을 풍기며 어둠 속에서 속삭이던 존재라니! 마법사인가, 사절인가, 아니면 변신한 괴물인가, 그것도 아니면 바깥 것들인가…… 그 끔찍하고 억눌린 듯한 웡웡거림이란……. 선

반 위, 그 갓 만들어진 듯 매끄러운 원통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니…… 가련한 영혼이여…….

"경이로울 정도의 외과적, 생물학적, 화학적, 그리고 기계적 기술이……"

왜냐하면 의자에 놓여 있던 그 세 물건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 가장 미세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빼닮은—아니, 완전히 똑같은—헨리 웬트워스 에이클리의 얼굴과 두 손이었기 때문이다.